코리안
뉴스위크
2018년 1월 26일(금)
www.facebook.com/korean.newsweek
Korean Newsweek
30 Brises du Fleuve #1006, Montréal.Québec H4G 3M7
Tel:(514) 993-2121 e-mail : knewsweek@gmail.com
No.1090

Canada Life
조용휘
T: 288-7979/C: 898-5727
카나다라이프
Mutual Fund RRSP
생명,교육,상해보험.단체,은퇴연금

황금하우스
안창살, 순대국,감자탕,왕갈비
L.A.갈비,파전, 족발 등등
5908 Sherbrooke West
TEL. : 514-487-1712

몬트리올
한인 골프스쿨
개인,그룹,가족/ 초보~교급까지
박영식 : 438-321-3243
montrealkorangolf@gmail.com

영양 돌솥밥
La Maison de SEOUL
내장탕 순두부 돌솥비빔밥
술을 가져와서 드세요~
5030 Sherbrooke W.(489-3686)

자동차,주택,상업보험
생명,단체,유학생,SuperVISA,방문,여행
514-575-0836
ASSUR SOLUTION
Cabinet de services financiers
한국어 서비스
4001 Cremazie E.#100
MTL QC. H1Z 2L2

IMMO SUPÉRIEUR
부동산 정민수
514-913-4288
만나면 만날수록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
부동산과 모기지를 한곳에서, "One Stop Service"

VOYAGES BARO BARO
한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 되는 곳...
바로바로 여행사
(514) 939-1237
2075 blvd Robert-Bourassa # 1207

황치과
Dr. George J. Hwang
Chirurgien Dentiste/Dental Surgeon
ATWATER 근처
(514)933-1110
4060 Ste.Catherine W. Suite 515
Westmount, Qc. H3Z 2Z3

TD Canada Trust
예금,적금,송금,대출,
뮤추얼펀드,교육적금, RRSP
6100 Sherbrooke W.
N.D.G지점 H4A 1Y3
(514)481-3767 (한국어서비스)
한국식품 건너편
월~수:8:00~18:00,목,금:8:00~20:00
토요일:8:00~16:00

서울미용실
월~목 : 10시-6시
금 10~8시, 토 10시~5시
(일요일은 휴무)
5705 Sherbrooke W.
514)369-0727

레스토랑
한국식 중화요리
438.385.7333
5461 Rue Sherbrooke O

퀘벡주, 내년 중소업체 세금 감면한다

꾸이야르 퀘벡 수상 "최저임금 인상과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충격 완화 위해"

퀘벡 주수상 필립 꾸이야르는 차기 주정부 예산에서 중소 업체들의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목) 발표했다.

대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꾸이야르 수상은 동행한 기자들에게 변경되는 연금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누군가의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면 그것은 중소기업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꾸이야르 수상은 차기 예산안에 대대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주정부 살림을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꾸이야르 수상은 추가적인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주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감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수익 9만달러인 4인가족 가정의 경우 이미 1천달러의 정부 수표를 아동 학용품 지원 명목으로 수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예산 심의는 2월초에 속계되며 10월 1일에는 주정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선거전에 들어서 있다"며 "선거일이 고정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퀘벡주는 오는 5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1.25에서 75센트 인상한 $12 달러로 인상한다.

주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있자 중소 영세 업종들은 추가적인 임금 압박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몬트리얼의 경우 지난 7년간 비주거 건물에 대한 비즈니스 세금이 무려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딸롱 마켓 부근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한 업주에 따르면 2010년에 약 1만9천달러였던 비즈니스 세금이 2017년에는 4만6천달러 이상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천간 145퍼센, 매년 14퍼센트 이상 인상된 셈이다.

같은 기간중 로즈몽 지역의 비거주 건물에 대한 세금은 연평균 3.19%씩 인상되었다.

이 업주는 "당초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세금이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지 않았다"며 무려 3만달러나 올라버린 세금탓에 "뭘 하려도 할 수가 없다. 모든게 오르기는 하지만 이 세금은 다른 무었보다도 빨리 오르고 있으며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이제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18년도에도 4.6% 인상된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세금이 오른데는 그가 영업하고 있는 건물의 공시가가 2010년에 $448,000에서 2018년에는 $1,226,167로 올랐으며 세금은 이 공시가에 기준해 계산되어 부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사업체와 건물을 수리했는데 그로인한 건물 가치 상승으로 인해 또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이 업주는 "무엇이 올지 알 수가 없어 무엇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비즈니스 세금은 렌트비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건물 전체 가치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건물보험+관리비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업주들은 "이러한 구조가 각종 비즈니스들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0년 ~ 2017년간 몬트리얼의 재산세는 총 26억달러에서 36억 달러로 대폭 늘었다.

이는 재산세 증가가 건물값을 올리는데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PyeongChang 2018

부동산
제2의 도약을 위해
groupe sutton과 함께
행복만들기를 계속합니다
Sutton
서정협
real estate broker
e-mail jsuh@sutton.com
O: 514-769-7010
C: 514-244-0751

LE PET TOWN
www.lePetTown.ca
애견미용-용품
한인경영
514-641-7387
4555 St-Charles,Pierrefonds,QC

春屋 Furniture and Décor
새가구 알뜰장만 Decor춘옥
Email:customerservice@cheonuk.com
카탈로그 구매상담 가능/ 오피스가구 특별할인
전화 : 888-688-3881 리디아
WWW.CHEONUK.COM

헤어Q
무료주차 Guy
전화 994-0675
1616 Ste-Catherine O. 2층

로젠택배
고국에 우체국보다 싸고 신속히 보내드림
정관장 6년근 홍삼 전제품
아사이 베리, 오메가 3 골드
셀렉스-C, 최초 몬트리얼 아토미센터
6151 Sherbrooke St.W. MTL
(514)487-5104 한국식품 내

한인경영
상담문의 환영
"특별 할인 UP TO 40%"
무료설치 무료견적
www.simplelineblinds.com

가격비교 불허!
집 내놓으시기 전에
부동산 가치의 최대 효과
식당메뉴, 음식사진 등 광고용
회사 로고, 가족사진을 롤블라인드에
<오타와 견적 출장 환영>
심플라인 블라인드
SIMPLELINE BLINDS
simplelineblinds@gmail.com
(514) 623-8131/557-2063

CINÉASIE
CREATIVES
To become "KFF Supporters!"
서포터즈가 되어주세요~
캐나다 한국영화제
www.koreanfilm.ca
514-799-6880
한국영화와 함께 한
20년 전통
www.cine-asie.ca
kff
korean film festival
c a n a d a

코리안 뉴스위크
30 Brises du Fleuve #1006,
Montréal.Québec H4G 3M7
Tel:(514) 993-2121
knewsweek@gmail.com

오늘의 외환시세

1월 25일 매매 기준율

캐나다화	:	861.26원
미 화	:	1063.70원
1 CA$	:	0.8097 U.S
1 US$	:	1.2351Can

한인라디오
90.3FM
VOKO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www.ckut.ca

캐나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는 무엇?

은행은 TD, 운동화는 나이키
진통제는 타이레놀, 비타민은 재미슨

캐나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도 주요 요인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입소스 캐나다가 8일 발표한 캐나다 브랜드 신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같고 가격이 같다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사겠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 리더스다이제스트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는 각기 다른 30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90%의 응답자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신뢰하는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93%나 됐다.

캐나다인이 기업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해당 회사들이 항상 책임감이 있고 자신들이 파는 제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이다. (복수응답) 92%의 응답자는 기업이 항상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또 78%는 리콜을 발표하는 회사에 신뢰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번에 각 품목별로 가장 신뢰되는 브랜드를 보면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승용차에서 토요다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은행에서는 TD가, 생명보험사는 선라이프파이낸스, 여행보험은 블루 크로스가 차지했다.

운동화는 나이키, BBQ그릴은 웨버(Weber),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 약국은 솝퍼드러그와 파마프릭스가 차지했다. 시리얼은 캘로그, 비유제품음료에는 실크, 생수는 네슬레, 선스크린은 에비노, 선스크린은 코퍼스톤(Coppertone) 애완동물 사료는 퓨리나, 악취제거제는 라이솔(Lysol)이 차지했다. 또 근육통과 두통진통제는 타이레놀, 감기시럽은 버클리스(Buckley's), 비타민은 재미슨(Jamieson) 등이 차지했다.

'대북지원 재개' 하자는 文정부
'시기상조' 말리는 국제사회

우리 정부가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명했지만, 미영일 3개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방침을 설명하면서 "지원 실시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일영 3개국 외교장관은 일제히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반대했으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강경히 반대했다고 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집행 시기 및 규모는 결정하지 않았다.

신문은 이어 강 장관의 의사에 찬성해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외교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미일영 3개국의 주장에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고도 했다.

이에 결국 밴쿠버 회담의 공동 의장성명에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다만, 대북 대화를 중시하는 공동의장국의 캐나다의 주도로 성명에는 "외교적 해결의 조건 정비 지원을 행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표현이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밴쿠버 회담에는 한국전쟁 때 유엔사령부에 군대와 의료팀을 파견한 16개국과 한국, 일본, 인도 등 총 2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참석국은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20개국이다.

캐나다 방문
한인 26만 명 시대

지난해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이 2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 말 발표한 '주요국 한국인 출국 통계'에 다르면 10월까지 집계된 캐나다행 출국자가 25만8467명으로 전년 대비 18% 급성장했다. 2016년 11월·12월 출국자가 각각 1만 명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전체로는 26만 명을 무난히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꾸준히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방문객 수이지만 2017년은 월별로 예년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 최고 성수기라 할 수 있는 7, 8월은 오히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3월부터 5월까지 봄철과 10월 방문객이 2016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다른 분포를 보인 배경으로 이례적으로 길었던 휴일을 꼽을 수 있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이 끼어 4월 말부터 시작된 최장 9일간의 연휴, 그리고 개천절과 추석이 포함된 10월 황금연휴에 캐나다와 유럽 등 평소 가기 어려운 장거리 목적지를 찾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8년에는 5일 이상의 장기 휴일이 9월 말 추석밖에 없어 한인 방문객 수가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2017년 한국을 찾은 캐나다인은 16만3176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는 2018 임진클래식 하키 경기

한국에서 태생한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상원의원 연아마틴은 2018 년 1 월 19 일 대한민국 파주시 (한국전쟁 당시 하키경기가 치뤄졌던 장소)에서 열린 역사적인 2018 임진클래식 (하키경기 기념행사)의 개최 소주년과 전쟁 때 섬기고 희생하신 캐나다인들과 그 이외의 분들이 남겨주신 유산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50 년대 당시 치뤄졌던 원조 경기들과 2018 년 경기는 전쟁 당시 치뤄졌던 선수들의 맹렬하고 대립적인 정신과 자부심을 담고있다.

이 행사는 평창 2018 올림픽 준비위원회와 협력으로 캐나다 대사관과 파주시가 공동 개최하였다. 캐나다 대표단에는 전쟁 당시 하키 선수였던 클로드 샬렁드 전 대령, 데니스 무어 전 병장과 더불어 국제한국전용사협회 회장 존 비숍 전 중령이 함께 하였다. "임진클래식은 한국전 때 캐나다인들이 남긴 유산에 경의를 표합니다. 1952 년 흑백 사진을 처음으로 봤을때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파주에서 임진클래식을 주최하자는 영감은 평창이 2018 년 동계올림픽의 장소로 지정됐던 2011 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포츠와 "하키 외교"의 힘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 역사적인 행사의 개최 시기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라고 연아마틴 상원의원은 밝혔다.

2018 임진클래식은 1952-1953년 겨울 임진강 빙상 위 (파주시)에서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네디언 라이트 보병대(PPCLI)와 로얄 22 연대 (Vandoos) 사이에 치뤄진 하키 경기를 기념하는 행사이다. 2013 년 첫 임진클래식 기념행사는 오타와에 위치한 리도운하 빙상위에서 진행된 2013 윈터루드축제 중에 열렸다. 국회의원들과 특별초대된 선수들은 Vandoos/PPCLI 연합팀과 대결하여 12:12 무승부를 기록했다. 파주에서 열린 경기는 캐나다 국외 거주자들과 4 명의 캐나다 보병대 소속 현직 군인들이 연합하여 연세대/고려대 연합팀과 겨뤘다. 이 두팀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소망의 상징이다.

"2018 임진클래식과 임진청소년클래식은 한국에 대한 사랑과 평화에 대한 바람으로 한국을 섬기신 캐나다인참전용사님들의 유산입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큰 열기와 영감으로 평창올림픽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연아마틴 상원의원은 밝혔다.

캐나다 작년 대마초 매출 57억 달러 1인당 1200달러 구매 꼴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최종 입법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각 가정이 매년 점차적으로 마리화나 구입 비용이 증가했다는 통계보고서가 나왔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마리화나 경제 보고 1661년-2017년'에 따르면 작년에만 15세에서 64세 캐나다인 490만 명이 의료와 비의료 오락용 마리화나를 구입한 총액이 57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소비자 1인당 1200달러인 셈이다.

마리화나 구매 비용의 구매를 비교하기 위해 다른 기호품에 대한 가계의 지출을 보면 2016년도에 맥주, 와인, 독주 등 알코올 구매에 지출한 비용이 총 223억 달러였으며, 담배는 160억 달러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 구매의 90%가 비의료용 즉, 오락용 마리화나 구입에 쓰였다. 현재 캐나다에서 비의료용 마리화나 구입과 사용은 불법이다.

최초로 마리화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61년부터 각 가계의 마리화나 구입 비용을 추산한 결과 56년간 매년 평균 6%씩 증가했다.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마리화나의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생산됐다. 2017년도에 캐나다에서 생산돼 소비된 마리화나는 총 54억 달러이고 불법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마리화나는 3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작년도에 합법적으로 판매된 마리화나는 12억 달러에 불과하다.

1960년대에는 캐나다에서 소비된 마리화나의 40%가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들이었다. 작년에 외국에서 들여온 마리화나는 8%가 감소한 반면 해외에서 소비된 캐나다산 마리화나는 1961년 2%에서 20%로 크게 늘어났다.

1961년-2017년 평균으로 보면, 주 사용 연령대는 18-24세의 젊은이들로 48%에 달했다. 25-44세는 29%, 그리고 15-17세는 12%였으며 45-64세는 10%에 머물렀다.

21세기 들어서서는 18-24세가 33%로 낮아지고 25-44세가 40%로, 그리고 15-17세가 18%였으며, 45-64세는 9%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전체 중 45-64세의 가계 지출에서 마리화나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1975년 4%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에는 23%로 크게 증가했다. 마리화나 가격은 1961년 그램 당 5달러였으며 점차 가격이 상승해 1989년 12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7.5달러로 추정된다.

현재 대마초 산업은 맥주산업 규모와 유사하며 담배산업보다는 더 크다.

캐나다 삶의 질 3년 째 세계 1위

한국 좋은 나라 종합순위 22위

캐나다가 지난 3년간 연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2위를 차지하는 동안 한국은 20위권을 오르내렸다. 미국의 U.S.뉴스와 Y&R, 그리고 와튼 스쿨은 공동으로 2018년도 최고국가 2018(Best Countries 2018)을 23일 발표했다. 여기서 캐나다는 종합 2위를 기록해 2016년 이후 2위를 계속 지켰다. 반면 한국은 2016년 19위에서 2017년 23위를 내려갔다가 이번에 22위를 한단계 올라섰다.

캐나다의 9가지 평가 항목 순위를 보면 기업정신은 7위, 탐험은 18위, 시민권은 4위, 문화영향력은 11위, 유산은 40위, 이주는 32위, 비즈니스 개방성은 7위, 힘은 12위를 차지했는데 삶의 질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실 캐나다는 삶의 질을 제외한 8개 항목 순위가 지난 3년간 하향세를 보였지만 삶의 질은 굳건하게 1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기업정신은 12위, 탐험은 62위, 시민권은 26위, 문화영향력은 30위, 유산은 48위, 이주는 15위, 비즈니스 개방성은 25위, 힘은 11위를, 그리고 삶의 질에서 24위를 차지했다. 2016년도에 삶의 질은 20위를 그리고 2017년도에 25위를 차지했었다.

올해 종합순위에서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독일이 1위였다. 독일은 2017년 4위, 2018년 3위로 상위권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2016년 4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2017년 7위로 그리고 올해 8위로 점차 낮아졌다. 미국이 낮아진 이유로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당선 이후 이민이나 국제 무역 등을 포함해 그의 말투와 정책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됐다. 올해 순위에서 일본은 비 서구권 국가로 제일 높은 5위를 차지했다. 2017년도에도 5위를 2016년도에는 7위를 차지했었다.

캐나다 男근로자 100달러 벌 때 여성은

남녀 임금격차 여전

캐나다의 남녀 임금 격차가 지난 30여 년간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여성은 똑같은 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 거의 25%나 적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여성은 74.2센트에 그친 것으로 1984년 당시에 비해서는 약 10센트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남녀 임금실태'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지난 2년 새 순위가 19위에서 35위로 무려 18단계나 하락했다.

이와관련, 세계경제포럼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은 주요 선진국 대부분도 마찬가지였다"며"앞으로 남녀가 동등한 임금을 받기까지는 170년이나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최근 영국의 경우 국영BBC방송의 중국 주재 여성 특파원이 남성 직원에 비해 50%나 적은 임금을 받자 사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온 일부 유럽국가들도 갈길이 멀다"며"매우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소득, 3세대 지나며 하향 추세

연방통계청의 2016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비백인 이민 2세대가 1세대 부모보다 수입이 더 많은 반면, 3세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인과 일본계 3세는 비백인 그룹 중 각각 8%와 7%의 소득 증가를 보였다.

캐나다학회는 2016년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이민 및 정착 정책 전국회의에서 제출할 보고서에서 "비백인 이민자들은 연 평균 소득이 3만8065달러로 여전히 백인 이민자들(4만7978달러)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 5월 실시된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35~45세 연령층 이민2,3세의 소득 실태를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비백인 이민자들의 자녀는 5만5499달러로 부모세대보다 47%나 더 많이 번 반면, 백인 2세대 자녀들은 5만4174달러로 부모들보다 단지 13% 더 많이 버는데 그쳤다(백인 2세대 그룹에는 전체 백인 그룹의 6.1%를 차지하는 원주민을 포함시켰다).

이민2세대 그룹 중 남아시아 출신이 평균 6만2671달러로 부모세대(3만8979달러)보다 60%나 더 벌었다. 특히 이 그룹 중 중국계 2세대 그룹은 6만5398달러로 소득이 가장 높았다. 중국계 2세대는 1세대 부모(4만3085달러)보다 소득이 50% 더 많았다. 라틴계 및 흑인계 2세대그룹은 1세대 부모들보다 수입이 각각 20%, 22% 증가한 데 그쳐, 다른 비백인 이민그룹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비백인 그룹 중 3세는 부모인 2세 그룹에 비교해 소득이 1만 달러나 적어 주목을 끌었다. 모든 비백인계 3세는 소득이 2세대보다 18%나 감소한 4만5893달러로, 백인계 3세는 7% 줄어든 4만9347달러를 번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학회 관계자는 "3세 그룹의 이 같은 현상은 이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절하 때문이다. 또 이민자들이 과거처럼 더 이상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대신 자신을 위해 이민을 선택했다는 인식 변화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해외서 미화 600불 이상 쓰면 카드 내역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

한국인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미화 기준 600달러 (캐나다화 약 740달러)이상 쇼핑하면 (또는 현금 인출)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세법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실시된다.

단,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항공권 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들도 신용카드로 1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소비하고 한국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기별 합계액이 미화 5천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특정 기한 내 세관에 알리도록 돼있다.

'벨' 고객 10만 명 정보 유출 이메일·전화번호 등 해킹 당해

가입 고객이 2,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벨 캐나다'가 해킹을 당해 고객 10만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

벨 캐나다는 23일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 해당 고객들에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에도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190만 명의 이메일 주소를 도난당했으며, 이번 해킹은 8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유출된 고객 정보는 성명과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벨 측은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 정보는 해킹 피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벨 대변인은 "고객들에 사과하며 모든 피해 고객에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경찰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전문가는 "이메일 주소 등 신상 정보가 해킹되면 피싱 공격 등에 노출,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고객과 업체와의 관계를 이용해 위장, 유인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체자-이민법 위반자 정보 공유 캐-미, 상호 방문자 신상 교환

사생활 침해 우려 커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근거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법 위반자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캐나다통신은"연방정부는 2011년 미국과 체결한 국경안보협정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위반자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공개법을 근거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캐나다통신은"미국을 거쳐 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가는 외국인들의 신원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연방정부는 범법 피신자와 테러 위험인물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이름과 국적, 출생일 및 성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국경관리당국은 미국국토안보부로부터 매일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당국도 미국 방문자의 정보를 미국측에 넘겨주고 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캐나다 국경관리당국은 미국으로부터 모두 9백만건의 정보자료를 전달받았으며 이를 활용해 위반자 1천여 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통신은 "연방정부는 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입출국자들의 신상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라며"그러나 이 정보는 미국과 공유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인권단체와 신민당 등은 "해당정보가 사생활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이를 감독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호성 변호사 법률상담

Ho Sung KIM, Avocat - Attorney

- 이민대행 및 이민법 전문
- 민법, 상법

법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법 문제를
모국어로 쉽게 상담해 드립니다

2001 - McGill University Computer Science
2006 - Université du Quebec à Montréal LL.B.
2007 - Hugues Langlais Law Office
2008 - Member of Barreau du Quebec (퀘벡주 변호사 자격증)
2009 - Solo Practitioner – Law Office of Ho Sung Kim
2011 - 퀘벡 한인실업인협회 고문변호사
2013 - 몬트리올 한인회 고문변호사
2013 - Y&K 이민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2014 - 퀘벡주 이민변호사협회(AQAADI) 이사

TEL : 514-717-6720 / FAX : 514-439-3868 / E-mail : hosung.kim@gmail.com
300 Saint Sacrement Street, Suite 328 Montreal (Quebec) H2Y 1X4 (올드몬트리올)

미 셧다운, 3일 만에 3주 예산안으로 '임시 봉합'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가 사흘 만에 종료됐다. 여야가 22일 상·하원에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셧다운의 원인이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 부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원은 이날 낮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다. 하원도 이날 오후 상원에서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업무는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서 기쁘다"면서 "정부는 불공평한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다카 부활 연계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오전 절충안에 합의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는 이민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공정한 토론과 개정 절차를 약속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슈머 원내대표가 다카 부활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하고 예산안 카드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고,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카 부활은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에 셧다운 책임론을 면제해준 꼴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이 지도부 노선에 반대하며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 때문이다. 2020년 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커스틴 질리브랜드·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70만 젊은이들의 삶을 자신의 말을 지속적으로 부정해온 누군가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구의 상원의원 10명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 장기화는 불가능한 카드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인편의점 '아마존 고'에서 '도둑질' 시도해보니…

아마존, 22일 시애틀에 첫 무인 편의점
계산원 없이 인공지능이 소비자·상품 식별해
선반서 물건 꺼내는 순간 가상 장바구니 담겨
상점 내에서 바로 가방에 담아 '도둑질하는 느낌'
NYT "상품 식별 막아 시도한 '실제 도둑질'은 실패"

아마존 누리집에 소개된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 설명 사진. 화면 중앙의 흰색 구조물이 입장 때 '아마존 고' 앱을 인식해 소비자를 파악하고 퇴장 때 소비자가 가상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계산하는 개찰구다.

"도둑질하는 기분이네요." 22일 미국 시애틀에 문을 여는 아마존의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를 미리 체험한 〈뉴욕 타임스〉 기자는 아마존에서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꼭 도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계산원이 없을뿐더러 계산대조차 없는 이 편의점에선 물건을 집자마자 통상의 계산 절차 없이 가게 내부에서 바로 가방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에 적용된 인공지능(AI) 기술 덕에 '실제 도둑질'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아마존 고'를 이용하려면 전용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수다. 편의점 입구에는 지하철 개찰구 같은 입장 장치가 설치돼 있고 이 장치에 앱을 인식해야 상점에 들어갈 수 있다. 167㎡ 규모의 내부에는 여느 편의점과 같이 음료수, 과자 등 각종 상품이 진열돼 있다. 소비자가 선반에서 제품을 꺼내는 순간 제품은 앱 내부의 가상 장바구니에 담기게 된다. 선반에 다시 물건을 올려놓으면 물건은 장바구니에서 삭제된다.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수백개의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이 개별 소비자와 상품을 식별해 장바구니에 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은 상점을 나올 때 다시 거치는 개찰구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뉴욕 타임스〉 기자는 아마존의 허락을 얻고 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실제 도둑질'이 가능한지 시험해봤다. 그는 물건을 선반에서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봉투로 꽁꽁 감싸고 이 물건을 겨드랑이에 낀 채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도둑질을 시도했다. 결과는 실패. 앱은 그가 훔치려 한 음료값 4.35달러를 정확하게 청구했다고 한다. 이 편의점에 종업원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계산원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주고 주류 구매를 원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는 안내원이 가게 안에 상주한다. 또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도 고용돼 있다.

아마존은 이 '아마존 고' 매장을 더 열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아마존이 지난해 인수한 유기농식품 유통업체 홀푸드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뉴욕 타임스〉는 "아마존이 이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른 소매업체에 이 기술을 팔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3년째 가뭄 케이프타운… 물 없는 '데이 제로(Day Zero)' 눈앞

오는 4월 중순부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의 도시 케이프타운에서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게 된다.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케이프타운시는 4월21일을 물 공급이 중단되는 '데이 제로(Day Zero)'로 선포했다. 데이 제로가 실현되면 케이프타운은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세계 첫 주요 도시가 된다.

19일 매일앤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퍼트리샤 드 릴 케이프타운 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 제로가 오면 병원과 같은 응급시설을 제외한 도시 내 수도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곳 주민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물 배급소 200곳에서 군인·경찰의 감시 하에 물을 받아다 써야 한다. 배급소 한 곳당 매일 2만명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고, 한 사람에게 배급되는 물은 하루 6.6갤런(약 25ℓ)으로 제한된다. 미국인이 하루 평균 쓰는 물의 양이 약 100갤런이다.

시 당국은 수도 공급원인 댐의 저수용량이 13.5%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 수도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용량은 21% 수준이다. 2년 4개월 전인 2015년 9월에는 7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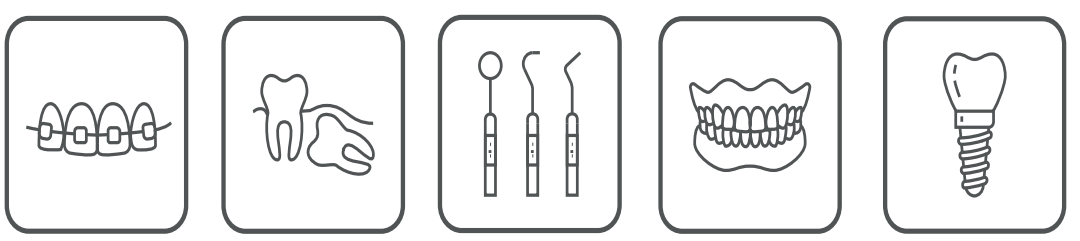
인구 400만의 해안도시인 케이프타운은 지난 3년간 전례없는 최악의 가뭄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6월 남아공 당국은 케이프타운을 포함해 가뭄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물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물을 하루 23갤런까지만 쓸 수 있다. 오는 2월1일부터는 그마저도 13갤런으로 줄어든다.

가뭄 외에 급격한 인구 증가와 수자원 계획 실패도 물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케이프타운의 인구는 1999년 이후 2배 이상 늘었지만, 수도 공급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지 매체 사우스아프리칸에 따르면 시는 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담수화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해 총 7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시가 정한 4월21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가장 진행이 빠른 아틀란티스 지하수 개발도 목표치의 60%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시가 발표한 날보다 더 빨리 데이 제로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MK 치과



치과 [dentistry] :
"구강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한다".

이제 모든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치사
Wansu Kim
Sungbae Park
Vay Vay Hao
Ki Hwan Kim

구강악안면외과의사
Farid Amer-Ouali

치과의사
Jean Nguyen
Tarek Kandaleft

5890 Ave. Monkland, Suite 205, Montreal (Québec) H4A 1G2
514-484-7078
한국어 상담가능

도쿄 한복판 '독도는 일본 땅' 전시관

에사키 데쓰마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이 25일 도쿄 히비야공원 내에 문을 연 영토·주권 전시관에서 독도 관련 전시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25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설 전시관을 도쿄에 열었다. 그동안 시마네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관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영토 문제에 관한 상설 전시관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내 시세이 회관 지하 1층에서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 전시관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자료도 전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전시관을 개방해 일본인은 물론 방일 외국인에게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시관이 있는 히비야 공원은 일왕 거주지인 고쿄와 가까워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또 전시관을 학생들의 견학 코스에 포함시키도록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사키 데쓰마 영토문제담당상은 개관식에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내외에 알리는 데 주축이 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에 붙인 이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거점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면서 "기획전을 실시하고 전시자료도 충실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조선수 150명에 몹쓸짓 한 팀닥터 175년형

지난 30년동안 미국 체조선수 15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미 체조대표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사진)에게 징역 175년형이 선고됐다.

미국 미시간주 랜싱 법원의 로즈마리 아퀼리아 판사가 24일 성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체조대표팀 겸 미시간대학 소속 팀 주치의 나사르에 내린 판결이다.

나사르는 치료를 빙자해 체조선수들을 자신의 치료실에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연방법원 법정에서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로 이미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피해자 중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시몬 바일스, 앨리 레이즈먼, 가비 더글러스, 맥카일라 마로니 등이 포함됐다.

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따낸 체조 스타 레이즈먼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그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고, 2012년 런던올림픽 체조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마로니도 13세부터 나사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폭로했다.

아퀼리나 판사는 "당신에게 이런 벌을 언도하는 것은 나의 영예이자 권한"이라며 "당신은 그 어디에 가더라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두 번 다시 감옥 밖으로 걸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는 피해 여성과 가족들도 앉아 있었다.

AP통신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미국 내 많은 일자리 만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두고 "우리(미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세이프가드 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행동은 미국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탁기 산업을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라며 미국 내 많은 세탁기 공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인의 일자리와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무역의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미국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무역전쟁은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만 올라갈 것이고 그게 오늘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일자리를 다시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면서 "이 나라에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에 대해 한국과 재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잘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할 것"이라며 "북한의 균열 전략이 작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워싱턴이 그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 FTA를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이 동맹에 헌신적이란 한국의 믿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뉴욕 타임스퀘어 '노무현 비하 광고' 광고대행사 공식 사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게시돼 해당 광고대행사가 결국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광고대행사 빅사인메시지닷컴은 25일(현지시간) 오후 해당 전광판에 사과문을 게시해 "얼마 전에 저희 광고대행사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 생일 축하 메시지로 여겨지는 광고를 송출했다. 송출 후 해당 메시지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겨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희는 생일이나 결혼 프러포즈처럼 특별한 일을 축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고대행사로 통상적으로 정치나 종교와 관련된 메시지는 내보내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사과문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0분 정도 해당 전광판에 게시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비하 광고는 같은 날 오전 0시5분부터 5분 동안 게시됐다.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한다, 노알라',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 '해피 운지 데이' 등의 문구가 실렸다. 이 광고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인 '뉴욕일베'가 신청한 것으로 이 회원은 게시판에 광고를 신청하는 서류 '인증사진'도 올렸다.

이 회원은 지난 22일 오전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가 게시된 것을 보고 노 전 대통령 비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린 하나다” …한 식탁서, 라커룸서 웃음 나눈 단일팀

세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총감독과 박철호 북한 감독이 25일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 앞에서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선수단 첫날
북 선수들 경의선 육로로 내려와
남 선수들 꽃다발 건네며 환영
북 감독 “힘·마음 합쳐 좋은 결과 낼것”

“우리는 하나다.”

사상 첫 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25일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본격 출항했다.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온 뒤 버스를 타고 낮 12시30분께 진천선수촌 빙상장 앞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선수 12명, 코칭스태프 3명)은 이재근 진천선수촌장, 이호식 부촌장,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세라 머리 남북한 단일팀 감독과 선수들의 환대를 받았다.

정몽원 아이스하키협회장 등이 북한 선수단과 일일이 악수하며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하자 북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안녕하십니까”라며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남한 선수들은 북한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박수를 치며 입촌을 환영했다. 북한의 박철호 감독이 받은 꽃다발을 머리 남한 대표팀 감독에게 전하자, 머리 감독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환하게 답했다. 남북한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

박철호 북한팀 감독은 입촌 소감을 묻자, “북남이 하나가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힘과 마음을 합쳐서 이번 경기 승부를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감독은 “경기에서 지겠다는 팀은 없다. 우리의 모든 기술과 육체 등으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영식 이후 식당으로 옮겨서는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됐다. 한상덕 대한아이스하키 경기력향상위원장은 “남한 선수들이 ‘더 먹으라’고 했고, 북한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식사했다. 남북 선수들의 표정이 매우 밝았다”고 밝혔다.

머리 남북 단일팀 총감독은 이날 훈련 대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었고, 저녁에는 단일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 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어갔다.

단일팀은 2월4일 스웨덴과 평가전을 벌이고, 평창올림픽에서는 2월10일 스위스전을 시작으로 스웨덴전(12일), 일본전(14일)에 대비해야 한다. 단일팀은 순위결정전까지 총 5경기를 치른다.

머리 총감독은 26일부터 북한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한상덕 강화위원장은 “지난해 4월 강릉 세계대회에서 남북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낯이 익은 것 같다. 북한 선수들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 북의 합류가 전력의 마이너스가 되기보다는 조화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머리 총감독은 앞서 빙상장의 아이스하키 라커룸의 옷장을 35개로 늘렸고, 남한 선수 2명 사이에 북한 선수 1명 식으로 라커에 이름표를 붙여 선수들이 빨리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표팀의 골리(골키퍼) 신소정은 “새롭게 바뀐 라커룸을 오늘 처음 봤다. 실감이 조금 나는 것 같다. 시간이 없으니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선수들은 남한 선수들과는 달리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한다.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선수단 숙소를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북한 선수들의 현지 적응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눈물 못 닦아준 ‘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대법원 앞에서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무죄 선고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징역 6년, 존 리 전 옥시 대표 무죄 등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수사를 하지 않아 나온 결과로 너무나 부당하다”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를 통해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 가습기 살균제 제품 43개 중 옥시, 세퓨,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 제품 관계자만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를 많이 양산한 애경, 이마트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들 기업은 피해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살균제가 유해한지 보고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잘 팔리자 이를 본떠 PB(자체브랜드) 제품을 만들었다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7)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3)에 대해서는 금고 4년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제임스에듀
기초전문 / 4명 미만 소수정예 / 원장직강 책임지도
겨울이벤트
불어(테팍준비)왕기초
1월 10일 ~ 4월 27일
수, 금 4 ~ 6시
$900 ➤ 10% DC $810
(March break 휴강)
Snowdon 스노우던역 옆 메트로슈퍼 2층 204호
5115 Trans-Island suite 204 Montreal H3W 2Z9
T.514.770.7161 TALK JamesEdu

MB 조카-아들 '다스 실권 다툼' 검찰, 녹취파일 확보 분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조카 이동형씨가 다스의 경영 실권을 놓고 다투는 정황이 담긴 다스 내부자의 녹취 파일을 대량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다스 내부자 A씨로부터 녹음파일 수백 개를 최근 제출받았다. 이는 A씨가 2016년부터 이씨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다른 다스 직원들 등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두 사촌 형제가 다스의 실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 이 부사장은 대화 상대방에게 "내가 총괄이사, 대표이사로 가는 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달을 낼 것 같은 뉘앙스"라며 "이제 문제는 형(이동형)이 총괄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 강등시켜 가지고 저 밑에 밑에 아산으로 보낼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다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대표로 승진하기는커녕 사촌 동생 이씨 측의 압박으로 오히려 실권을 잃고 밀려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사장은 통화 넉 달 후 총괄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다스 아산공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사장은 "시형이는 지금 MB 믿고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맘대로 하고 있잖아", "(이상은) 회장님 의견이 중요하잖아.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고 해도 회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전날 그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출석하며 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다.

반면 다스 전무인 이시형씨는 녹취에서 "알아서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잖아요. 이 부사장 잘못도 있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할 일이고 바깥에서 이 부사장하고의 일이잖아요"라며 사촌 형이자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이 부사장을 지적하고 힐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이씨가 직원 인사 문제 등에도 전권을 쥔 듯한 언급을 하는 내용도 녹취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내부자로부터 녹취를 입수했으며 수사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가닥 당내 경선 새 변수 될까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절친'인 정청래 전 의원이 지원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정청래' 조합이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전 의원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이 자신이 밝힌 정치적 계획과 관련해 자꾸만 '갈지자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을 돕기로 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관측과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최근 자주 만나서 선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출마선언 시점과 관련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여러 이슈들을 살피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주 전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이 힘을 합칠 경우, 서울시장 선거의 또다른 변수로 가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활발한 방송활동과 SNS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열성 지지층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봉주 전 의원의 트위터 팔로워는 85만명에 가깝고, 정청래 전 의원은 55만6천여명이다.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은 6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의원, 민병두 의원, 우상호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유력 의원들은 이미 출마 의지를 밝히고 물밑 활동에 한창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행정처장 교체 '판사 블랙리스트'건으로 사실상 경질

김명수 대법원장(59·사진)이 25일 안철상 대법관(61)을 새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대법관)을 교체한 것은 지난 24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후속 조사와 인적쇄신을 밝힌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김 처장의 후임으로 안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인 김 처장은 다음달 1일자로 행정처장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인사는 사실상 김 처장에 대한 경질성 조치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지난 24일 사과하면서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 인도를 행정처에 요청했으나 협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하면서 후속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임 전 처장 컴퓨터 인도를 거부한 김 처장을 교체해 향후 추가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임 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안 대법관은 지난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가 첫 '50%대 국정지지율'에 보인 반응

청와대가 '국정지지율 하락 현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22~24일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5일 공개한 주중동향(1월4주)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59.8%, 부정평가는 35.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그동안의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건군절 열병식 논란으로 확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문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지지율 하락 추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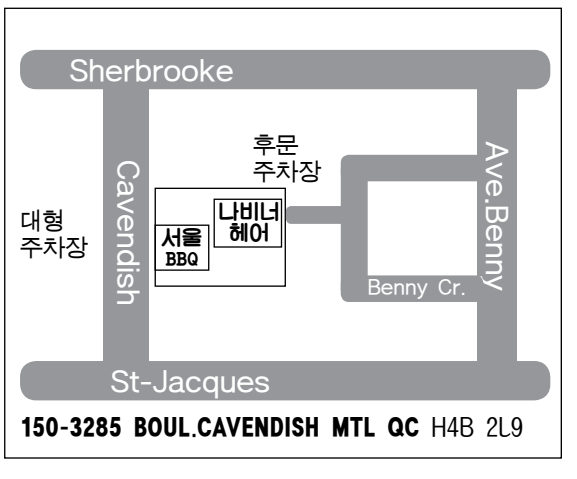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는 사안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구)HUN 헤어

카톡주소 : navino4884

나비너 헤어

Navino Hair



150-3285 BOUL.CAVENDISH MTL QC H4B 2L9

영업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7시

토 : 오전 10시 ~ 오후6시

일요일 : 휴무

<주차안내>

미용실 뒷편 주차장

Cavendish 건너편 대형주차장

예약전화

514-225-4714

514-995-4714

평창동계올림픽에 한걸음 더 가까이

캐나다 한국문화원, '올림픽 스포츠와 평화운동' 주제로,
웨스턴대학교 국제올림픽연구센터와 '올림픽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강연을 마치고 이영호 문화원장, 나탈리 데브로, 마이클 하이네 교수, 박인규 공사의 기념촬영
▶'올림픽 세미나'에 참석한 웨스턴대학교 오타와 지역 총동문회

캐나다 한국문화원(원장 이영호)은 1월24일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국제올림픽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웨스턴대학교 국제올림픽연구센터장인 마이클 하이네 교수(Michael Heine)를 초청, '올림픽 스포츠와 평화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올림픽 세미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한국문화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소개하기 위해 문화원과 웨스턴대학교 오타와 지역 총동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웨스턴대학교 졸업생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전시를 둘러보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으며, 박설지씨의 사회로 주캐나다 대사관 박인규 공사의 환영사, 마이클 하이네 교수의 강연 및 질의 응답, 강사 및 행사를 준비한 나탈리 데브로(Natalie Devereux) 웨스턴대학교 오타와 지역 총동문회 기획담당관에게 감사 선물 증정, 한식 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인규 공사는 환영사를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라고 설명하며, 스포츠는 전 세계인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어왔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강의를 진행한 마이클 하이네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며,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화합과 평화가 깃들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스포츠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좋은 연구 사례로 남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호 문화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전하며, "문화원은 얼마안남은 기간 동안 윈터루드 축제 참여와 올림픽 특별 전시 등을 통해 캐나다인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연, 오타와 지국장-

클로드 샤를랭 한국전 참전용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주자로!

임진클래식 아이스하키 재현행사에 참석한 6·25참전 당시 캐나다연대 선수였던 클로드 샤를랭씨는 아이스하키 경기장 주변 성화봉송로에서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대사, 한국참전용사 등과 함께 봉송 주자로 참여했다.

MVIP TOUR

MVIP 여행사

하나.2018여름방학 에어 차이나 김포공항행 스페셜
베이징 한번 경유하고 미리사서 저렴하게 여름에 한국 가자!(마감임박)
스페셜!! 에어 차이나 $850부터 ~(출발5월 25일~6월 21일/7월 2일~8월 30일)
스페셜!! 에어 차이나 $1030부터 ~(출발6월 22일~7월 1일)

둘.2018여름방학 에어 프랑스 스페셜
스페셜!! 에어 프랑스 $1021부터 ~(출발5월 1일~8월 30일)

셋.2018여름방학 아시아나 항공 스페셜
스페셜!! 아시아나 항공 $1359부터 ~(출발7월 2일~8월 16일)

비수기 인천행 스페셜
에어 차이나$993부터~(베이징 경유 김포공항1월1일~5월 24일 출발)
에어 프랑스$1021부터~(1월 1일~8월 30일 출발)
에어 캐나다$1195부터~(1월 1일~4월 30일 출발)
아시아나 항공 $1209부터~(1월 1일~5월 6일 출발)
대한항공 $1226부터~(1월 1일~4월 30일 출발)

항공사와 리턴 날짜에 따라서 surcharges 가 추가될 수 있으며 좌석수 제한이 있으며 주중 가격입니다. 가격은 광고후에도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항공권 가격 여행사에 문의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떠나는 패키지 여행
(겨울휴가 미리 예약 하세요)
쿠바 ,멕시코,도미니카 공화국, 코스 타리카등
(sunwing / Transat /Aircanada /Westjet vacation ,TMR, caribe sol tours등)
웹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한인여행사와 함께하는 캐나다 서부 여행
(2인 1실 기준/ 항공료 별도)
벤쿠버 ,록키, 빅토리아 5박 6일 $579
오로라 ,에드민턴몰, 록키 6박 7일 $829

캐나다 /미국 버스투어 Let' s go to USA(4인 1실 기준)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1박 2일 $59.99부터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2박 3일 $109.99부터
뉴욕 2박 3일 가이드투어 $76.99부터
뉴욕 3박 4일 가이드투어 $159.99부터
보스톤 1박 2일 $99.99부터
보스톤 &뉴욕 2박 3일 $129.99부터
보스톤 &Rhode Island 2박 3일 $139.99부터

1625 Boul. de Maisonneuve West #304 Montreal QC H3H 2N4 (쿵코디아 지하철 1분거리)

MVIP 여행사
Quebec #702904

오랫동안 한인 여행을 담당하셨던 모드변씨와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514-564-5258 또는 514-564-5250
MVIPTOUR@GMAIL.COM

사뮤엘 레이
(영/불/중/독어)

다양한 매물! 밝은 미래!

SAM'S
GROUPE SAM'S GLOBALE
AGENCE IMMOBILIÈRE & HYPOTHÈCAIRE
REAL ESTATE & MORGAGE AGENCY

514-591-5188 부동산

AGENCE IMMOBILIERE / REAL ESTATE AGENCY / MORTGAGE BROKER

28년 경력 공인중계사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서비스

2934, Jolicoeur, Montreal, Quebec, H4E 1Z3
email : samuellai@groupesams.com
전화 :514-768-8886 팩스 : 514-768-0078

Leslie Woo

중계료 2%*, 노타리비**

특별 프로모션! (한시적) *부동산 매각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2%부터 시작) **구매자에게 드리는 혜택

주택, 주상복합, 커머셜 부동산 파실분 / 사실분
대출관련 도움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세요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www.groupesams.com에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79,000+재고 타이 익스프레스(프렌차이즈 fee 9%) 연매상 50만불, 쉬운운영, 장기임대, 성업중인 쇼핑몰에 위치, 좋은가격 높은마진 (blvd. Cure Labelle, Rosemere)
2.$259,900+재고 서브웨이 식당, 유명 프렌차이즈, 쇼핑몰에 위치, 적당한 임대료, 장기임대,높은마진, 연수익8만불, 10%다운페이 스몰비즈니스 론, 연락요망(rue Grand Heron, St-Jerome)
3.$89,000+재고 드라이클리닝, 50년된 가게 18년간 같은 주인, 장비완비, 월세$1600, 임대기간은 구매자 원하는 만큼, 쉬운경영 (rue Chabanel west, Montreal)
4.$449,000 새미 커머셜 빌딩, 넓은 아파트 5½(비어있음), 빈 가게자리(술집), 주인이 위에 살며 사업가능, 타운입구에 위치(rue L'Ange Acadian, Ville Assomption)
5.$99,000 대지, 5000sft, 주택이나 상업빌딩 주상복합 건축가능, 윗층에 아파트 8호까지, 발리필드 다운타운에 위치 (rue du Marche, Valley field)
6.$499,000 대지, 29,500sft, 강가, 상업&주거지역, 건축하기 매우 용이, 건물 올려 높은 이윤 만드세요. 전화요망! (Ch. de la Patriot, St-Jean-Richeliu)
7.$319,000 새미커머셜 빌딩, 아래층 데파노, 연매상 50만불, 윗층 아파트 4½, 주차 4대, 데파노 구매가능 $59,000+재고, (65e Ave, Lasalle)
8.$1,019,000 커머셜빌딩, 윗층은 데이케어가 입주(월세 $3500+40%세금, 8년남음) 아래층은 120석 식당(배달) (rue Provost, Lachine)
9.$39,900+재고 동양식당, 80석, Cote Vertu와 du College 지하철 인접 (Blvd Decarie, ville St-Laurent)
10.$299,000+재고 아이스크림 가게, 프랜차이즈, 연매상 30만불, 월세 $7000, 7년임대+5년 옵션, 수퍼 딜! (Blvd. Galarie d' Anjou, Ville d' Anjou)
11.$49,000+재고 셀프 세탁소, 동전넣고 작동하는 세탁기와 건조기, 월세$1250+tax, 연매상 $65,000 순수익 $45,000 자세한 내용은 전호요망 (rue Jarry Est, Ville d'Anjou)
12.$668,000 새미 디타치드 듀플랙스, 2x5½, 지하실 완료, 차고, 모든 수리 완료, 전화예약하고 방문 하세요 (rue Norman, Ville St.Janet)
13.$399,000 커머셜 스페이스, 4000sft, 각종 사업으로 사용가능, 밝은전망, 부자 고객들 중심에 있음, 2개의 가게로 나눌 수 있음, 방문요망!!! (Ste-Catherine W. Westmount)
14.$229,900+재고 레스토랑, 연매상 60만불, 모든 장비 및 가구 포함, 장기임대, 월세 $3600, 빨리 팔릴테니 서두르세요 (Blvd. Mont-Royal, Montreal)
15.$34,900+재고 드라이 크리닝, 밝은전망, 번화한 플라자에 위치, 모든 장비 있음, 성업중, 높은 수익 (rue Cote Vertu West, Ville St.Laurent)
16.$279,900 콘도 4½, 차고, 실내를 통해 들어감, 동향-햇빛 많음, 매우 좋은가격 (rue Lapierre, Ville Lasalle)
17.$109,000+재고 커피숍, 50년간 경영, 높은매상, 월~토 영업, 부부가 경영하기에 좋음 (rue Queen Mary, Montreal)
18.$399,000+재고 이태리식당, 연매상 1,500,000$, 쇼핑센터 내, 높은 가능성, 합리적인 월세, 13년 임대 (ave St.Charles,Ville Vaudreuil)
19.$79,900+재고 피자식당, 고등학교 바로옆, 주변에 큰 사업체, 높은매상, 로욜라 컬리지로 배달 많음, 임대료 적합, 빨리 연락주세요 (rue Westminster North, Montreal West)
20.$329,000 차압된 커머셜빌딩, 번화가에 위치, 주차10, 매우좋은 딜!, 다른 종류의 식당 오픈 가능, 전화 주세요 (Rue Marquette, Longueuil)
21.$34,900+재고 데파노, 성업중인 몰에 위치, 연매상 65만불(배달포함) 4000 sft 넓고 임대료 저렴, 은퇴하려고 헐값에 매각 (rue Cote Vertu W. Montreal)
22.$8,000,000 농지, 20 loted. 고속도로 10/30 바로 건너편, 새쇼핑몰 근처, 새개발지역, 새기차역 근처 (Blvd. Grande Allee, Brossard)
23.$449,000 새미커머셜 빌딩, 아래층 프랜치 식당, 윗층은 5½ 아파트, 바로 뒤에 시주차장 120대, 매우 좋은가격(rue Principale, Ville Cotes du Lac)
24.$469,000 넓은대지, 강가, 커머셜&주거지역, 29,000sft, 건축허가 떨어졌음 (Ch. des Patients, Ville St-Jean-sur-Richellieu)
25.$299,000+재고(약30만불) 달러샵, 오랜기간 경영, 연매상 150만불, 장기임대, (rue QueenMary, Montreal)
26.$579,000 아파트 빌딩, 3½+5½+데파노(아래층) 다른 업종으로 변경가능, 매우 좋은가격 (rue Allard, Montreal)
27.$199,000+재고 1불스토어, 높은전망, 연매상1백만불, 합리적인 월세, 높은마진, 매우 쉬운 경영, 큰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데 좋음 (rue QueenMary, Montreal)
28.$169,000+재고 타바지, 30년간 운영, 오피스 건물 2동에 위치, 일하는 사람 9천명, 높은매상, 주5일근무, 오전 7시~오후 5시, 수퍼 딜!(rue Cremarzie Est, Montreal)
29.$89,000 이태리 식당, 30년 전통, 높은매상, 월세 $3500+GST+QST+Biz tax(4500$/year), 2층+테라스, 매우 높은 마진, 전화요망(rue St.Denis, MTL)
30.$1,090,000 이태리인이 지은 집, 방5, 지하실완료, 아래층은 아파트로 변경가능, 매우 맑은 호수+넓은대지(42에이커)(Rang 2e Street, Ville St.Blaise pres de Napierville)
31.$69,000+재고 40년간 운영한 데파노,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매상, 연매상 50만불 (rue Allard, Montreal)
32.$349,000 새미 커머셜빌딩, 아래층은 데파노(월세$1600+비즈니스 세금), 윗층은 큰 5½(월세800$, 전기, 난방별도), 임대7년, 전화요망 (rue Jarry E. Montreal)
33.$769,000 아파트 건물, 연수익 약10만불, 윗층에 아파트3, 아래층 가게3, 번화가, 대지 15,000sft, 약간의 다운페이로 가능(rue Notre Dame Est, MTL)
34.$165,900+재고 드라이 클리닝, 번화가에 위치, 좋은 매상, 건물 매매도 가능 (Blvd Monseigneur Langlois, Ville de Valleyfield)
35.$419,000 새미 커머셜, 아파트2, 아래층은 피자식당, 발리필드 시의 다운타운에 위치, 옆에 대지도 판매($99,900) (rue du Marche, Ville Valleyfield)
36.$2,799,000 대지, 17,500sft, 커머셜&주거지역, 6½x72개+가게2개+차고, 아파트 70개+24주차(지하) 가능, 85% 허가 받음(rue Jarry Est, Montreal)
37.$400,000 프랜치 식당, 90석+40석 테라스, 스키 시즌 겨울장사가 좋음, 5½아파트포함, 넓은주차장, 식당포함 매매(rue Adele, Ville St-Adele)
38.$99,000 드라이클리닝, 좋은 빌딩의 코너에 위치, 경험자에게 좋음, 높은 매상, 좋은가격, 적은 지출, 높은마진 (rue Laurendeau, Montreal)
39.$89,900 대지, 5,500sft, 상업&주거 지역, 6~8 아파트 건축가능, 넓은 공간, 좋은가격 (rue Du marche, Ville Valleyfield)
40.$79,000+재고 동양식당, 주방2, 60석, 1050sft, 콩코디아대학 바로옆 (rue Ste-Catherine W. MTL)
41.$39,000+재고 리셉션 홀 + 식당, 120석, 모텔(방13개), 10만sft 대지, 강가, 연수익 10만불, 건물과 함께 구매가능 ($319,000) (ch. du tour du lac, Ville Nominingue)
42.$619,900 109,000,000 스퀘어미터의 농토, 곧 레지덴셜 땅으로 존닝이 바뀔 예정 (rue Montee St.Robert, Ville St.Lazare)
43,$199,000+재고 수퍼마켓, 성업중, 패스트푸드 함께 함, 쌩-꺄뜨린느 번화가에 위치, 콩코디아 대학 부근, 월세 좋은 가격 (rue ste.Catherine west)
44.$750,000 대지, 주거용, 3필지, 건축허가 받음, 필지당 4플랙스 건축시 빨리 팔 수 있음, 빨리 연락주세요 (rue de Monts, Ville Emard)
45.$279,900+재고 서양식당, 성업중, 200석+테라스, 약4800sft, 매우 좋은 손님층, 18년 임대(매년 원가인상 방식) (Blvd. Chambly, Ville Longueuil)
46.$250,000+재고 데파노, 연매상 70만불, 복권 10만불, 순수익 약9만불, 2x3½(윗층), 월세 400$, 전기,난방 별도 (rue Chateauguay,, Ville Hungtington)
47.$359,000 커머셜 콘도, 1,800sft, 레스토랑 장비+가구 포함, 주차3, 매우 좋은가격 (Blvd. Cure Labelle, Ville Rosemere)
48.$279,000 유명 일식당, 250석, 연매상 $1.5M, 13년 장기임대 (rue St.Laurent, Longueuil)
49.$8,500,000 호텔 방120개+스파, 넓은땅, 호숫가, 800석 컨벤션홀, 좋은 가격 (Blvd. Montee Yvon Plante, City of Alexis des Monts)
50.$199,900 대지, 상업용/거주용, 약1만sft, 번화가 코너자리, Lachine, 연락요망 (Lachine)
51.$125,000 컨티넨탈 레스토랑, 조용한 불어지역, 매우 좋은위치, 다른 종류 식당으로 변경가능, 건물매매가능(+25,000$) (rue Ste-Adele, Ville Ste-Adele)
52.$169,000+재고 타바지, 오피스 건물내 위치(3000명 근무) 크레마지 지하철 바로옆, 매우 바쁜거리, 월세 $1600(세금포함) 9년임대, 순수익 $85,000 (rue Cremazie E. MTL)
53.$319,000 모텔, 방13개+레스토랑, 멋진 강가에 위치, 멋진 건물, 넓은대지(10만sft), 건물 올리실 분에게 좋음 (ch. du tour du lac, Ville Nominingue)
54.$59,900+재고 동양식당, 영여권 번화가에 위치, 밝은전망, 월세 $2700 세금포함, 임대계약 장기로 갱신가능, 새장비(rue Sherbrooke W. MTL)
55.$149,000 드리이클리닝, 장비가 매우 좋음, 좋은 매상, 높은마진, 연락주세요 (Blvd St.Charles, Kirkland)
56.$129,900 커머셜 콘도 150sft, 가장 고급 지역, 웨스트마운트, 사무실로 적합, 좋은 가격 (rue Ste.Catherine West, Westmount)
57.$199,000+재고 피자식당, 같은 주인 40년간 운영, 연매상 50만불, 번화한 몰, 넓은 주차장, 항상 성업중, (Blvd. Henri Brossard Est, Montreal)
58.$64,900 동양식당, 100석, 데카리 번화가에 위치, 식당 경력 있으신분에게 매우 좋음 (Blvd Decarie, Ville St-Laurent)
59.$59,000+재고 데파노, 빌딩포함, 주택가, 연매상 50만불, 순이익 7만불, 운 좋은 분이 차지할 것입니다 (65e ave, ville Lasalle)
60.$129,000 새미 커머셜, 윗층 1x5½, 아래층은 폐업한 식당, 모든 장비 있음, 넓은대지, 20만sft, 좋은가격(rue Principale, Ville St.Belermy)

모기지 상담 환영!
시중 5대은행 및 다양한
모기지옵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한번에 해결하세요!

COURTIER IMMOBILIER

서 정 협
(Justin Suh)

514-244-0751

e-mail : jsuh@sutton.com

주택/ 비지니스/ 렌트 (종합 부동산)

부동산 Sutton®

GROUPE SUTTON - SUR L'ILE INC.

AGENCE IMMOBILIÈRE

38, place du commerce #280
(Nuns island 내에 있는 Pharmaprix 2층에 위치)

Condo

Lasalle 앙그리뇽역 인근 콘도
방3, 욕실1+1, 실내주차,
약42평형 규모,교통편이.
인근 쇼핑센타 및 지하철
걸어서 5분내
Asking **$39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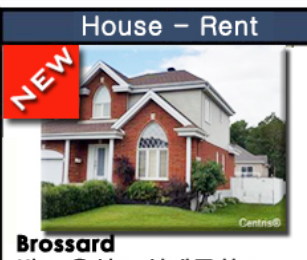
Condo

Downtown
방2, 욕실1, Locker, Berri역
걸어서 10분이내. 5대 가전
포함. 2018년 5월말까지
RENT. 투자가치 양호.
Asking **$178,900**

Condo

Brossard "L Section"
방3, 욕실 2, garage & locker
포함, 2012년 신축 콘도
다양한 편이 및 부대시설,
Asking **$359,000**

House – Rent



Brossard
방4, 욕실3, 실내주차 1,
1998년 건축된 big size
house, 12/1일 입주가능,
fully furnished 논의가능
Asking $2,400/월

Condo

NUNS' Pyramid Condo.
방3, 욕실2, 실내주차,
New floor, new painting,
즉시 입주 가능.
$369,000

단 독 주 택

Val-Morin 2006년 건축한
단독주택+3채의 부속건물,
총 4개 건물,대지면적48,600
SF내외, 펜션, nursing house
또는 B&B 사업 가능
$549,000

Condo

Lasalle
앙그리뇽 신축콘도- EQ8
방2, 욕실1, Garage & Locker
±900 SF, 다양한 프로모션가능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람.

Condo

NUNS' 넌즈내
Evolo 신축콘도,
방2, 욕실2,
실내주차, 창고,
파노라믹한
riverside view,
고급 부대시설,
Asking $678,000

단 독 주 택(급매추천)

Brossard
방4+1, 욕실2+1, GARAGE,
7600 SF규모 사이즈,
고속도로 및 미래 경전철 라인
인근, 인근에 다양한 편이시설
Asking $398,000

단 독 주 택

LAVAL
방**4+2**, 욕실 **3+1, double garage**

단독주택 Rent

BROSSARD 실내공간 1,700
SF내외, 방3+1, 욕실 1+2,
고속도로 인근 M 섹션,1월초
입주가능, 총 대지면적 4,350
SF내외, semi-furnished
$1,750/월

Condo Rent

WESTMOUNT Vendome근처
아파트 서브렛,방2, 욕실 1,
7월 1일 입주가능, 750 sf내외,
난방, 전기, 온수 포함
가격 $990/월

단 독 주 택

Chateauguay지역 단독주택,
방2+1, 욕실1, 대지 5,000 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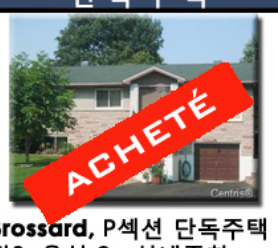
단 독 주 택

Candiac 단독주택
방 3+1, 욕실2, 다수의
레노베이션
asking $399,000

Condo

Downtown
신축콘도, 방2, 욕실 2,
파노라믹 View

단 독 주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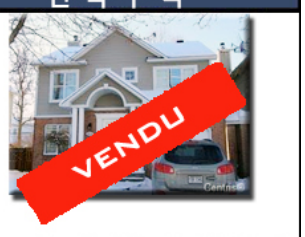
Brossard, P섹션 단독주택
방3, 욕실 2, 실내주차,
대지면적 5,200 sf,
파나마 환승역 인근,
교통최적, asking $349,000

단 독 주 택

Brossard 단독주택
방3+1, 욕실2, 교통최적

asking $289,900

단 독 주 택



Plerrefonds 방3+1, 욕실2+1,
다수의 renovation

$449,000

Sunwing 부킹 하기 전에
바로바로에 부킹 하시면 (보시는 사이트 금액) 즉석에서 40$ Cash back 해 드립니다
(2인 1실 일주일 올 인쿠르시브 패캐지 기준)

www.barobaro.ca

바로바로 여행사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기념 에어 캐나다 세일

출발 날짜 (1월 28일 ~ 3월 31일 사이)
티켓 요금 (1064 $ + OPC $ 30 펀드차지)
주중 여행 요금이며 주말에는 $ 50 추가 됩니다
세일 기간 (2월 9일까지)

대한항공 (2018년 최고의 이코노미 클라스 항공사 선정) 세일

출발 날짜 (1월 28일 ~ 4월 30일 사이) $ 1195
출발 날짜 (5월 1일 ~ 6월 21일 사이) $ 1440
세일 기간 (1월 26일까지 또는 연장 가능 문의 해 주세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지요!
(환상의 휴가는 비행기 요금 세이브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파리에서 여름을 (에어 캐나다 직항 여름 출발 / 840 $ 부터)
가족과 함께 아시아나 서울 (미국경유 7월2일부터 출발 / 1377 $ 부터)
일본에서 쇼핑을 (에어 캐나다 직항- 여름 출발 / 1200 $ 부터)
경치가 죽음인 더블린 (에어 트란잣 여름 출발 / 820 $ 부터)
말이 필요 없네요! 코나 (하와이 여름 출발 / 605 $ 부터)

겨울 캐리비안 사우스 패캐지 (10이상 그룹 요금) 바로 준비하고 어렌지 해 드립니다!
에어 캐나다 토론토 경유 사이트에서 보이지 않는 최저가 세일 요금 좌석
– 저희와 먼저 상의 해 보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되세요!

서울발 몬트리얼행 티켓, 한국에서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유류 할증료 및 서비스 요금 OPC FICAV 펀드차지 (1$/100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맥길 메트로에서 1분거리)

VOYAGES BARO BARO

18년 경험의 에이전트가 티켓 및 여행의 궁금함을 풀어 드립니다

514-939-1237
voyagesbarobaro@bellnet.ca
2075 boulevard Robert-Bourassa suite 1207
Montreal Quebec, H3A 2L1 (OPC-702659)

제3회 코원 신년파티

Bring It On 2018!

올해도 함께 행복한 기운을 나누며
2018년 힘차게 시작해요!

OLYMPIA 파티홀
(3855 BOUL SAINT-JEAN, DDO H9G 1X2)

2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 2018

5코스 디너(식사 전 칵테일과 에피타이저, 수프, 샐러드, 필레미뇽 또는 연어, 디저트 및 커피/차)
공연, DJ, 댄스, 경품

대상 : 만 18세 이상여성 및 남성 모두 환영
드레스 코드 : SEMI-FORMAL / 칵테일 드레스
가격 : 비회원 $50, 회원 $45 (사전구매 필수)

티켓구입 및 문의: 514-213-2460, 514-586-3951,
514-662-7924, 514-549-8268, KOWINMTL@GMAIL.COM

KOWIN MONTREAL

주최 :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몬트리올 지회
후원 : 대한민국여성가족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민주평통몬트리올지부
협찬 : 한국식품, KUKI, E.W. NETWORK 유학원, 로젠택배, MVIP모드변, 박부영,ATTI

IMMO SUPÉRIEUR IMMOBILIER INC.
Real Estate Agency / Agence immobilière

부동산전문

부동산 구입과 모기지를 한 곳에서…

514-913-4288

Msjung@immo-superior.com

정민수

(B.Th., RCIC)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 Mortgage Specialist

만나면 만날 수록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

더욱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물

DDO: Detached Bungalow 3+1 bed, 2 full bath, 1차고. 나무바닥 (1층),지하완료, 지붕(2014), 수리된 부엌. Central heating, Central A/C

다운타운 : McGill대 앞, 넓은 2 beds + 2 Bath (1,345 sf), 1 garage. 새로 수리된 콘도, 대학 캠퍼스와 Mont-royal 산 View, Central A/C

Nun's Island (Sommets IV) : 3 Beds + 2 full bath + 1 garage. 10 feet의 높은 천정, 시 감정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좋은 기회

Brossard, 2010년, 남향 밝고 아주 넓은 단독주택. 4+2 침실, 3+1 Bathroom, 1 garage. 새로 개발된 C section위치. Chevrier terminal (다운타운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 인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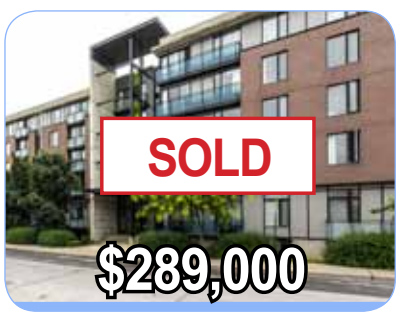
Le Plateau - Mont-Royal길에 가까운 상가 집중지역의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준상가 건물 (상가 1, 아파트 2)

Laval (Ste-Dorethee), 2004년 아주 밝은 단독, 침실3, 욕실2+화장실, 차고1. 상가 가깝고 주변 학교도 좋은 위치. 새 수영장 (2015) Heated, Salt system.

ST-Lambert : 침실 2, 욕실 2, 화장실1. 햇볕이 잘드는 타운 하우스. 지하 finish 되어 있음. 콘도피 없는 타운하우스

Gatineau 민박, 하숙에 최적화된 투자건물 (duplex) 침실9 욕실4, 독립 출입문3. 2층은 따로 리스 가능한 duplex. 가띠노 강을 바로본 view. 수리되어 있는 건물

Le Plateau 지역, Boul. St-Laurent 길에 위치한 1,760 sf의 공간. Mont-Royal 길과 가까운 위치.



Ville-Marie 콘도 침실2, 욕실1, 2007년신축, Papineau 지하철에서 도보 6분 거리

South-West 침실2, 욕실1, 화장실1, 외부 주차공간, 창고1, 복층으로 되어 있는 콘도

Old Montreal : 침실 2, 욕실 1, 창고 1, 2015년 신축 콘도. 14층 높이에 거실 open view. 교통편리. Square Victoria 지하철 500m

Candiac 타운하우스 침실2, 욕실1, 화장실1, 차고2, 2010년 신축, Central Heating/Central A/C 등 많이 업그레이트 된 타운하우스

LaChine : ASKED Townhouse, 3 bedrooms, 1+1 bath, 2 indoor garage

Ville-ST-Laurent 타운 하우스 : 2 BDR + Large Mezzanine, 1+1 Bathroom, 2 Indoor garages

Neuveau ST-Laurnet : 침실3, 욕실2, 화장실1, 차고 2, 넓은 Mezzanie. 지하 오피스/패밀리 룸 가능한 공간. 앞 건물과의 거리와 나무가 있어 답답하지 않음.

Neuveau St-Laruent : 침실 3, 욕실 1, 화장실 1, 차고 2. Mezzanie 에 패밀리룸까지 갖춘 타운하우스

넌스 (Nun's Island) - 콘도 : 침실3, 욕실2, 차고1, 실외 파킹1, 창고 2, 새 초등학교 부근, 쇼핑몰 대중교통 가까우며, 아주 밝은 유닛

DDO : ASKED price :Detached Split level 3+1 bedrooms, 2 bathroom, 1 indoor garage

Brossard (R section): 침실 4+1, 욕실 2+1, 더블 가라지. 조용한 주택가의 햇살이 많이 드는 집.

Investment 2018년 8월 말까지 $1,700/m 렌트되어 있음

15곳 이상의 금융기관과
"직접" 모기지 상담에서 승인까지
한 곳에서...

MCAP HOME TRUST FINANCIÈRE FIRST NATIONAL SEC TD BMO

<그때를 아시나요>

겨울풍경

전 나 유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데다 눈이 많이 내려서 길 옆에 쌓인 눈덩이들이 좀체로 녹아 내릴 줄을 모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캐나다의 눈 치우는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때입니다. 좁은 보도를 청소하는 귀여운 방게차를 비롯해서 긴 파이프로 포물선을 그리며 눈을 뿜어대는 차, 발이 푹푹 빠지도록 많은 눈이 내려도 한번 밀고 나가면 말끔히 바닥이 드러나는 탱크…등등 눈 치우는 장비가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많던 눈들을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눈 치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어릴적 시골 고향 마을에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 싸인 마을은 눈이 오면 눈 병풍이 쳐진 듯 했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마을 풍경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손으로 집어 입 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 맛이 시린듯 일품이었습니다.

입 안이 얼얼하고 마취 주사 맞은 듯 볼의 감각이 무뎌질 때까지 눈을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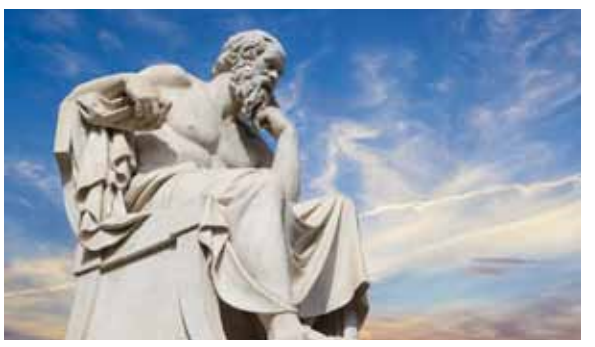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가 눈을 꽁꽁 뭉쳐서 눈싸움을 합니다. 귀마개라고 한 것이 옆으로 공간이 생겨 그곳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가 귀마개를 한 건지 안한건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시렵습니다. 그것도 잠시, 눈싸움에 온 신경이 쓰이면 귀 시려운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구 던지다 보니 아차 실수로 눈덩이가 그만 할아버지의 잔등에 턱하니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싸리비로 눈을 쓸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느닷없이 당한 눈벼락에 놀람과 동시에 화가 나신듯도 했으나 워낙 온유한 성품이신지라 이내 마음을 추스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뭉쳐서 우리에게 던지고 허허허 너털웃음을 웃으시며 눈싸움에까지 합세합니다. 할아버지의 가세로 눈싸움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눈 뭉치는 손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장갑 속으로 스며든 물기가 손을 더 시렵게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입김을 그래도 계속해서 호호 불어가며 언 손을 녹이는데 사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 저곳에서 고만고만한 마을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자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눈싸움 대열에서 빠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편을 짜 눈싸움에 돌입합니다. 목청껏 소리 지르고 뛰고 뒹굴고 달려가며 놀다 보니 입 안까지 칼칼해지고 목이 말라옴을 느낍니다. 궁여지책으로 눈송이를 한입 베어 물어 갈증을 해소합니다. 지금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만큼 공해가 없었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던 때였으므로 그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돌아보면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리워할 수 있는 자연의 순전한 환경 속에서 유년을 보낼 수 있었고 삶의 심각한 경쟁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대자연의 스승을 둘 수 있었던 것이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한참 들어 서 있는 지금까지 소중한 자료로 삶에 적용되어지니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눈 치우는 모습이나 마디마디 굳은 살이 베겨 딱딱해진 아버지뻘의 만석 오빠 손도 사랑으로 다가 옵니다. 황토 흙살이 드러난 앞산은 눈이 덮여 희디 흰색으로 곱게 치장하고 뒷산의 대숲은 눈보라 휘날리는 한겨울에도 변함 없이 그 위용을 자랑하던 내 고향마을의 겨울은 참 따뜻했습니다. 겨울이어도, 혹한이어도 따뜻할 수 밖에 없는 그 반어법적인 세계가 그리워집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옛 고향의 따뜻함이 소중해지는 그때, 그때를 아시나요.



장동헌 기자의 <세계 인물>
'아담에서 저커버그까지'

46.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 1930년 8월 30일 ~)은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인이다. 현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자 CEO, 투자자.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하는 가치투자방식의 달인으로 유명하다. 그의 총 재산 규모는 매년 세계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버핏은 경제,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꼽히고 있다. 네브래스카 오마하 태생으로 별명은 오마하의 현인(Oracle of Omaha).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시에서 평생을 살아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버핏과 한 동네에 살았던 몇몇 이웃들은 버핏이 어렸을 때 돈을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캐롤 에인절이라는 한 소아과 의사는 버핏의 말만 믿고 1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2008년에 4억 6,9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웃 한 번 잘 만나 횡재한 케이스다.

버핏은 젊어서는 증권 중개인이었고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하워드 호만 버핏의 아들로 태어났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증권회사에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그레이엄의 투자전문회사인 '그레이엄-뉴먼'에서 투자기법을 배웠다. 본인도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얘기해줄 때, 집안 이야기보다는 어렸을 때 자신이 용돈 벌러 했던 알바에 관한 일화를 많이 이야기 해준다고 한다. 가령 식료품점 점원이었을 때라든지 식당 버스보이였을 때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불과 6살 때 껌과 콜라를 팔았다. 11살 때 차트를 보고 Cities Service 우선주를 사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Cities Service 주식을 38달러에 사서 40달러 정도에서 매도했는데 나중에 200달러를 넘었기에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12살쯤에 워싱턴으로 이사 가게 된다. 선생님이 AT&T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자 AT&T를 공매도한 자신의 거래 내 역서를 보여줘서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도 했다.

이후 15살 때 오마하 북부의 농지 49000평을 샀다. 17살 때 핀볼머신 대여사업도 시작했다. 십대 후반에 이미 자기의 학교 교사들보다 많은 월수입을 기록하고 있었다. 버핏은 초등학생 때부터 월반을 해서 동기들보다 일찍 대입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투자와 사업으로 이미 경제적 대박을 거두었기에 자신을 사회인으로 생각했고 대학진학은 시간낭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이 자신을 가르치기에는 수준미달이라고 여기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결국 대학진학을 하게 된다.

본래 버핏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2년간 배우다가, 네브래스카 대학으로 옮긴 뒤 '난 네브라스카주에 사니까 아이비리그보단 역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최고지'라고 판단, 조기졸업으로 학사를 취득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네브래스카 대학 학부 졸업 후 그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지원했으나 면접을 망쳐서 떨어졌다.

하버드의 모 교수가 "당신은 하버드에 지원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한 일화가 있다. 당시 일화로 미루어보면 그는 한동안 낙담했다 한다. 그의 평전(스노볼)에 따르면 버핏이 그의 친구에게 말하길 "난 하버드의 네임밸류(Name Value), 즉 간판이 탐이 났던 것 같아. 하버드가 원하는 인재상이랑 내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 반성해야지."라고 했다고. 하버드에 떨어진 후 다시 대학원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찾은 것이 바로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이다. 그는 '데이빗 도드 교수님과 벤 그레이엄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되어 있더라, 나는 두 분이 올림포스 산 같은 데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만일 내가 입학하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술회했다 한다.

그곳에서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난다. 그레이엄은 필립 피셔와 함께 버핏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본인 왈 "15%는 피셔에게, 85%는 그레이엄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주식투자에 관련된 서적 중에서 그레이엄과 피셔의 것을 능가하는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세운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기업 인수, 합병에 참여하고 있으며 버핏의 혁신적이고 탁월한 투자 감각 덕분에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워렌 버핏은 친구인 빌 게이츠의 재단에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에는 21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평판과 영향력으로 몇몇 백만장자들은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그는 투자와 경제활동에 대한 많은 조언과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3년 트위터 가입을 통해 현재까지 적극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제지 포춘(Fortune)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재키의 자동차 여행

2018년과 자동차

박 재 길

지난 한해는 항상 그렇듯 다사다난 했던 것 같다. 그것이 다 인생사라고 해도 촛불로 인해 무혈혁명을 이룬 한국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고 마지막 달에 화재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어이없게 희생당하는 후진국형 재난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불과 29년전만 해도 구데타로 인해 국민이 억압받던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었으니 졸부가 된 대한민국에 여전히 고쳐야 할 점이 많은 건 당연하다. 이제 거의 모든 지표가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과 법은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아직도 한국사회속에서 존재함을 보면서 다시금 착잡해 진다.

한 국회의원은 그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안 들여 보내 준다고 항의를 해서 국과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새누리당 의원다운 특권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소방차는 출동해서 사다리차 올리는데 30분을 소비하였고 그나마 그 차는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500미터를 돌아들어가 결국 골든타임을 허비 하였다.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인재이며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필자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써어비스 로드에서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늘 한국에서 하던 대로 경찰에게 가서 바쁘다고 티켓을 빨리 달라고 하니 그 경찰 정색을 하고 차에 가서 대기 하란다. 시간이 지체된 후 받은 티켓금액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만-306불이 나왔으니-어쩌겠는가 한국이 아닌 것을. 아무튼 한국식 사고방식이란 말을 좋아 하진 않지만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님을 돈으로 배운 셈이다. 물론 이곳 경찰들도 상황이 허락하면 봐준다는 것도 안 것이 2000년과 2001년인데 토론토를 다녀 오다가 아무 생각없이 과속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옆에서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하는게 아닌가. 뒤에서 따라붙은 차를 못 보고 계속 주행을 하니 옆으로 와서 멈추라고 한 것인데 만약 고약한 경찰을 만났더라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더 다행인 것은 행운인지 모르지만 동승자가 여성인지라 가서 사정을 해 보라고 하니 경찰차 옆에 가서 몇 마디 하고 결국 티켓을 반값으로 받아 왔다는 것.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 경찰이 반으로 깍아 주었냐고 물으니 그녀 왈 "용서해 주세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역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캐나다에서 갚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아무튼 이제 그 이후로 십 수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문화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정치인들과 가진자들의 횡포(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나 이명박 전대통령의 DAS 와 BBK 논란)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 물론 캐나다의 정치도 알게 모르게 별로 다른 게 없지만 그나마 현 트루도 수상이 그의 정치적 능력보다는 그 잘생긴 얼굴로 캐나다의 이미지를 많이 올려 놨다는 평가를 받는 요즘이다-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에 남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2018년을 시작 하련다. 길 거리에 차들이 사고로 이리저리 널 부러져 있어도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으면 무신경해지듯 2018년에도 아마 우리 인생이 그럴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잔인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마치 몬트리얼 버스들이 왜 그렇게 눈길에 잘 미끄러지면서도 윈터타이어를 장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새타이어를 후륜에 장착한다고 한다. 좀더 좋은 그립을 위해서. 그러나 몬트리얼 전체 1800여대의 버스들에게 윈터 타이어 장착 의무 대상이 아니고 토론토 버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많은 타이어를 쉽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버스들이 눈길에 그처럼 쉽게 미끄러지는지 의아해 하고 심지 다운타운 매길대 앞에서 주루룩 미끄러지던 버스의 영상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된다. 윈터 타이어가 만능은 아니지만 법의 망은 큰 물고기들은 그물을 뚫고 나가도록 허약하다. 버스가 미끄러져 다가 올 때의 그 위압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일반 승용차가 미끄러져 오는 것과는 중압감이 다르다. 아마 버스회사들에게 윈터 타이어 장착의무조항이 예외인 것은 로비일수도 있고 힘있는 공공기관의 특혜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다면 그 대상은 서민들이 될수 밖에 없다. 캐나다의 사정도 한국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청산이 불과 단기간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 닿는다. 캐나다의 공공기관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써어비스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되기를 당근 바라지만 그렇지만 그나마 대형화제가 잘 나지 않는 캐나다의 모습에서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도 많음을 그리고 법을 지키면 서로가 편함을 보면서 강점을 한국사회가 배우길 기대한다. 2018년에는 정말 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대형사고나 큰 화제로 인명이 손상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을 것 아닌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되는 2018년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해본다. 모두들 행복하시라.

재정상식

최광성

이민 재정 수상(隨想)

캐나다 식으로 돈을 증식하는 자동 재산 증식 시스템을 한 두서너개씩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글쎄 훗날 여기에서 멋진 인생을 살기는 쉽지않음을 단언한다. 하지만 물론 직접 일해서 돈 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영주권이나 워킹퍼밋 과정에 온 정력을 기울여 낙담하고 또 희희락락하는 것 보다는, 좀 비싸도 변호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얼로 돈을 벌고 살까를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영주권과 워킹퍼밋은 물론 사람평가 중요한 고향에서는 가문의 치욕(?) 같은 낙방을 몇 차례 혹은 몇 년하더라도, 캐나다 거북이보다 더 뚝심있게 밀어부친 사람들 다 되더라…우리 고향사람들 빨리 빨리가 않되니 제 풀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것이 문제같다. 그리고 주위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왜 포기했느냐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데 그럴 필요없다. 포기한대로 또 않한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 살기로 작정했으면 합리화 의미없고, 그저 정부 방침 미련하게(?) 끝까지, 생각없이 왕거북이처럼 그저 따라 가기 바란다. Just Do It ! 이 왜 나왔게… 더해서 롱텀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몇 대를 거듭하더라고 꾸준히 버텨주면서 철저히 지키는 정부의 한결같음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정부란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여기 자동 재산 증식 시스템을 세우기 주저하는 것 같다.

하나 여기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투자 시스템은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실적이 좋고 또 그 투자 시장 관리가 공정하며, 사회가 매우 안정적인 그래서 신용이 최고등급인 북미의 주식 투자 시장을 중요한 엔진으로 이용한다. 이것이 싫으면 얼마 않되는 이자의 저축 구좌로 가야한다. 다만 엔진이 과열되다 퍼지면 않되기에 어드바이서와 튜닝을 잘 해 적절하게 원하는 속도로 목표해서 가야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증식하는 동안의 절세 면세 기능이다. 이 기능이 되면 매년 세금 보고할 필요 없어서 수익이 복리 증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자동재산증식 시스템의 열매(연금이나 몫돈)를 되도록 오래 받으면서 살게 디자인하는 것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데자르댕 신용조합의 연금보험펀드는 북미 주식 투자는 물론이고 금융기관간 이자 돈놀이, 국가 주정부 그리고 회사 채권, 우선주 이익배당, 제3세계 융자, 천연자원, 돈많은 개인의 특별재산증식관리, 캐나다와 퀘벡중심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 큰 캐나다 퀘벡 부동산 임대와 사고 파는 투자들까지도 곁들여 지난 25년간 연 6.15%-9%의 이익을 배당해 온 투자 노우 하우를 함께 쉐어하는 아이디어이다. 여기에 캐나다 정부가 보험에 준 면세 복리증식 기능을 더해 훨씬 빠르게 증식하는 토탈 투자 관리해주는 패키지이므로 어리거나 젊고 건강한 자녀가 20년 투자로 완납한다면 20년 완납 후 매년 더 빠르게 커지는 이익배당을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으로 쓰고 난 후 가입한 자녀가 자기의 남은 평생동안 계속 커지는 이익배당을 연금으로 쓸 것이며 이 연금과 같이 자꾸 커진 몫돈 캐시밸류는 몬트리얼 은행을 통해 라인 어브 크레딧 형식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훌륭한 연금 보따리 겸 몫돈이 되는 것이다. 2대가 점점 커지는 열매를 한번에 패키지한 데자르댕 신용조합의 연금보험펀드 자동재산증식시스템, 훌륭한 가문의 동반자가 된다.

문화올림픽 표방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강원국제비엔날레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강원도가 주최하고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족예술축전 조직위원회(이사장 오일주)가 주관하는 '강원국제비엔날레2018'가 2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44일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럼픽 기간 동안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홍경한 예술총감독은 "주제인 '악의 사전'은 예술언어를 통해 사회 내 예술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질문해 온 예술가들의 책무와 비엔날레의 기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한다"며 "현대사에서 자행된 비극적 경험을 투사하는 실제화 된 주제로 설정된 개념이 '악의 사전'이며, 이는 더 이상 집필하면 안 될 공통의 비극적 '경험'과 '상황'을 사전의 한 페이지로 개념화한 명사"라고 밝혔다.

20여 개국 60여 팀에 이르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되는 이번 비엔날레는 미디어, 조각, 설치, 회화, 퍼포먼스 등 현대미술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동시대미술의 흐름과 경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국 작가들은 대부분 베니스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등 주요 국제전 과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동시대미술계 주요 작가들로 꾸려졌다.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작업 중인 한국 작가들도 눈에 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덕현 작가를 비롯해,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정체성과 존재, 일상과 타자, 인간 욕망에 관한 서사를 담아온 김승영,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가상 국가인 '미들 코리아(Middle Corea)'와 전자 정부의 이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주목해온양아치,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참여한 이완, 공동의선에 대한 자문과 소비와 욕망의 이중주 등을 희비극의 서사로 풀어내온 김기라 등이 작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강원국제비엔날레2018'에는 장지아, 디황, 한효석, 심승욱, 최선, 최찬숙, 흑표범, 이진주, 고등어, 김명규 등이 출품한다. 대체로 강원국제비엔날레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이다.

'강원국제비엔날레2018'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엔날레 컨버시에이션, 시민체험프로그램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작품을 뒷받침하는 이론의 병행, 관람객들과 호흡하는 시민들의 무대도 준비될 예정이다.

한편 화합과 상생, 평등과 평화, 차이의 극복이라는 올림픽정신을 베이스로,'인간의 가치'에 주목한 '강원국제비엔날레2018'은 지난해 8월 개최된 '평화 프로젝트 155'와 10월 열린 '포트폴리오리뷰', 11월에 개최된 '기자간담회' 를 통해 문화올림픽으로써의 역할에 합격점을 받은바 있다. 난립하는 비엔날레 현실에서 콘텐츠로 승부하는 비엔날레라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통일'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인식은 모든 연령대 중 최고다

20대(만 19세~만29세)의 절반 이상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의 연령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말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1.1%였고, 반대는 23.6%에 그쳤다.

이에 동의한 세대별 비율을 보면 20대 49.7%, 30대 43.8%, 40대 43.8%, 50대 37.2%, 60대 이상 34% 등이었다. "남북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20대의 비율은 13.7%에 불과, 50대 32.2%와 60대 이상 30.3%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0대의 62.3%가 동의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세대별 격차가 벌어졌다. 20대는 "전쟁 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60대 이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연구를 진행한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 그동안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없었다.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전부"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이 조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낡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강 한파, 모자보다 목도리가 중요

요즘처럼 강추위가 몰아칠 때 집 밖으로 나서려면 모자, 목도리, 장갑, 귀마개, 마스크를 고루 갖추는 것이 좋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 전문가들은 첫째가 목도리, 둘째가 장갑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모자와 목도리 중 하나만 고르라면 목도리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아주 추울 때 밖으로 나가면 '머리가 시리다'며 외부 공기에 노출된 머리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뇌 부위는 자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목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이 보온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부위가 추위에 민감할 뿐 아니라, 이곳에는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혈관이 수축되면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노약자의 경우 뇌졸중 같은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강추위에 머리가 아픈 증세를 느낀다면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곧바로 실내로 들어와 방한 장비를 갖추거나 아예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심장에서 멀수록 추위 많이 탄다

목과 더불어 강추위에 약한 부위는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몸의 말 단부, 즉 손, 발, 귀, 코 등이다. 전문가들은 "심장에서 먼 말단 부분은 따뜻한 동맥혈이 잘 오지 않고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혈액이 말단까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장갑을 끼고 두꺼운 양말을 신어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병이나 내분비 질환, 동맥 경화증 환자는 말단의 혈액 순환이 더욱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철 액세서리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DurA architecture design
514-583-7862
www.duraad.com
wkim@duraad.com
125 rue Chabanel O. b211, Montreal (QC) H2N1E4
캐벡 먼허 건축사 |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 미국_캐나다 친환경 인정 기술사 (건물설계+시공) 김원철
Won Chul KIM architect licensed by OAQ | architect DPLG France | LEED AP (BD+C) by US_CAGBC
건축 설계 (문화, 영업, 교육, 근린생활, 주거, 업무시설, 친환경 건축물 등)
Architectural Design (cultural, business, educational, institutional, mercantile, residential, environmental design, etc.)
인테리어 디자인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가구디자인 등) Interior Design (renovation, remodelling, furniture design, etc.)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디자인 컨설팅, 건설 매니지먼트, 행정대행 업무)
Project Management (design consulting, construction management, agency business for administrative works)

세계 최초 복제 원숭이 탄생, 다음은?

세계 최초로 복제 원숭이가 탄생했다. 중국 연구팀이 체세포핵치환(SCNT) 기법으로 원숭이를 복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은 "SCNT 기법으로 마카크 원숭이 2마리를 복제했다"고 발표했다. 마카크는 북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산다. SCNT 기법은 1996년 영국 연구팀이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을 때 쓴 기술이다. 영장류(영장목)에 속하는 원숭이에서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류는 영장목에 속하는 인류, 유인원 그리고 원숭이를 포함하는 포유류 동물을 칭한다.

이번 연구 결과(Cloning of macaque monkeys by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는 1월24일 '셀(Cell)'에 게재됐다.

◇어떻게 성공했나

SCNT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나서 여기에 다른 체세포에서 분리한 핵을 넣어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기법이다.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면 체세포를 제공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얻을 수 있다.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이후 이 방법으로 영장류를 복제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문제는 원숭이의 복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직전 단계인 배반포기까지 제대로 발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국 연구팀은 원숭이 난자에 넣을 체세포 핵을 원숭이 성체가 아닌 태아로부터 분리해 넣는 방법으로 복제 수정란을 실제 수정란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복제 수정란이 잘 발달하도록 화학 물질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연구팀은 109개의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 21마리의 원숭이 대리모에 착상시켰다. 이 가운데 6마리의 대리모가 임신에 성공했고 2마리가 새끼를 낳았다. 새끼 원숭이 2마리는 체세포를 제공한 태아와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끼 원숭이들에게는 각각 '중중(Zhong Zhong)'과 '화화(Hua Hua)'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인간 복제도 가능할까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속하는 마카크 원숭이 복제에 성공함으로써 복제 인간도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CAS 연구팀은 "인간 복제의 장벽 하나를 허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팀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 복제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헨리 그릴리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중국 연구팀은 성인 체세포가 아닌 태아 체세포를 사용했는데 이런 방식은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학자인 그릴리 교수는 "현재로서는 인간을 복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만일 누군가를 복제하고 싶더라도 태아를 복제하기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이유 등으로 태아 세포를 사용하는 방식은 인간 복제의 또 다른 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연구팀도 "이번 연구가 인간 복제를 위한 것이기 보다 사람의 질환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의 무-밍 푸 소장은 "이런 복제 원숭이를 통해 심장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강전' 시작과 함께 울린 사이렌 정현은 듣지 못했다

거의 매주 비행기를 타고 전세계를 다니며 경기를 치르는 테니스 선수들은 도착지가 한국인지, 호주인지 구분이 안가야 선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시차에 적응하지 못하고 먹던 음식만 고집하면 투어 생활에 지장이 많다. 정현은 대회가 열리는 나라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일부러 한식을 찾아 다니지 않는다. 이번 호주오픈도 마찬가지다. 딱 한 번 중국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큰 경기를 앞두고 위에 부담을 주는 스테이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24일 테니스 샌드그런과의 8강전이 끝난 뒤 정현은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받았다. 그리고 페더러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25일 연습 일정을 잡지 않고 푹 쉬었다. 노박 조코비치와 16강전을 치른 다음날도 그랬다. 연습보다는 푹 쉬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쪽을 택했다. 잘 먹고 푹 쉰다. 그리고 최대한 경기에 방해되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

덕분에 정현은 코트에 들어서면 경기 집중을 잘한다. 한 포인트도 그저 흘려 버리는 것이 없다. 샌드그런과의 8강전 시작과 함께 상대 선수가 서브를 넣으려는 순간 느닷없이 사이렌이 울렸다. 나중엔 알려진 일이지만 경보 오작동이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지만 정현은 상대 서브 리턴을 어떻게 할까만 골몰했다. 정현은 그랜드슬램 4강까지 올랐는데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 로저 페더러와의 4강전도 그저 테니스 선수와의 경기일 뿐 특별할 것이 없다는 태도이고, 뭐라도 하나 배우겠다는 자세다.

혼자 있을 때도 정현은 무의시적으로 뭔가 꼼지락댄다. 자세히 관찰하면 습관적으로 오른쪽 손목을 밖으로 접었다폈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테니스하기에 최적의 몸을 만든다.

정현의 별명은 잘 알려진대로 '교수님'이다. 시력 교정 때문에 착용한 안경 때문인데, 실제로 곁에서 지켜본 정현의 행동은 '교수님'같다.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다. 정현은 이번 호주오픈을 통해 스타가 됐다. 하지만 실력뿐 아니라 인성과 매너에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페더러를 닮아가고 있다. 그는 우선 상대 선수를 배려한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큰 경기를 이기면 코트에 큰 대자로 눕거나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데 20대 초반의 한국 청년은 그렇지 않다. 라켓을 들고 손 한번 가볍게 흔드는 것이 승리 뒤풀이의 전부다. 상대 선수가 코트를 완전히 빠져 나가고 장내 아나운서가 정현의 이름을 부를 때 그제서야 만세를 부른다.

팬들에 대한 배려도 남다르다. 수백통씩 쏟아지는 축하 문자에 일일이 답을 해준다. 관중들이 내미는 사인과 사진 요청도 정성스럽게 대한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도 이 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승리한 뒤 1만여명의 관중 앞에서 영어 질문을 알아듣고 영어로 답하는 것은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정현은 유머있고 재치있는 답변으로 관중들을 즐겁게 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답지 않게 품위를 지키면서도 멋이 넘친다.

정현을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로 만든 힘은 정신력과 허벅지다. 그는 어려서부터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경기 내내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 위기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멘탈도 익혔다.

정현의 굵은 허벅지도 다른 나라 테니스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짧은 정현은 튼튼한 허벅지를 만들었다. 정현의 코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네빌 고드윈이 정현의 신체적 특징을 간파한 결과다. 고드윈 코치는 타점을 조금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끝에 정현식 서브자세도 만들었다.

정현이 테니스 다음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치아 교정이다. 삐뚤빼뚤한 치아를 바로잡으려고 대회가 끝나고 귀국하면 언제나 치과를 찾는다. 이번 호주오픈을 마치면 다음 대회까지 여유가 좀 있는데 이번에도 귀국하면 치과를 찾을 예정이다.

이 곳에 온 한국 테니스 관계자들은 '깜짝 스타'가 된 정현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질지 궁금해 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현이 결코 거들먹거리거나 건방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자신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에 흔들리거나 슬럼프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현은 나이답지 않게 성숙하고 무덤덤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정현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코트에서 보이는 내 모습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다. 그것이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다"라고.

먹거리와 건강

이미정 (한의사)

루푸스 신장염 (Lupus nephritis)

1. 이 질병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신장염은 면역 체계 질환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SLE) 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신장의 염증으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SLE) 는 신장, 관절, 신경계, 그외 다른 기관 및 계통에 피해를 줄 수 있다.

2. 증상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신장염의 다음과 같다.

혈뇨/어두운 거품이 많은 소변/

고혈압/눈, 다리, 발목, 손가락 주변의 부종/체중 증가/고혈압

3. 진단은 ?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신장의 초음파 검사, 신장생검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세계 보건 기구는 생검을 토대로 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신장염을 다섯 종류로 나누었다.

Class 1 ; 조직학적으로 정상이고 어떠한 질병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Class 2 ; 간질 남창 신장염의 발견을 토대로 한다.

Class 3 ; 국소 증식성 신장염이다.

Class 4 ; 미만성 증식성 신장염으로 Class 3과 4는 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로 치료한다.

Class 5 ; 막 신장염으로 심한 부종과 단백질 유실을 특징으로 한다.

4. 치료는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신장염의 치료 목표는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하여 사이크로포스파마이드 (cyclophosphamide) , 아자씨오프린 (azathioprine) , 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mycophenolate mofetil) , 사이클로스포린 (cyclosporine)와 같은 면역계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며 만약 신주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투석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신장 이식을 할 수 도 있다.

5. 합병증및 과 치료 경과는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신장염의 형태에 따라 경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없는 기간과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고 일부환자는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 될 수 있으며 신장 이식을 하도라도 드물게 말기 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병증으로는 급성 신부전/말기 신부전/말기 신질환/신장 증후군 이 있다.

칫솔 2개 두고, 번갈아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칫솔을 서랍이나 연필꽂이에 넣어둔다. 이렇게 보관한 칫솔로 양치질을 한다. 양치질은 입 속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입 냄새와 충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칫솔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양치질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 입 안에는 700종 이상의 세균이 산다. 치아를 닦는 칫솔에도 세균이 묻기 마련이다. 따라서 칫솔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세균 막대기'를 들고 이를 닦는 셈이 된다.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의 칫솔 보관법은 열악한 수준이다. 축축한 곳이나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 안성맞춤이다.

치과 전문의들은 "습기가 많은 곳이나 서랍에 칫솔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균을 10~100배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칫솔을 돌려쓰는 가족도 있는데 세균을 전염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칫솔을 쓴 뒤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직장에는 칫솔 건조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 말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생적인 칫솔 관리법은 양치질 후 물에 잘 헹구고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씻은 후 건조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또 당뇨병, 고혈압 환자는 세균에 취약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급속히 잇몸 질환이 악화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만약 양치질을 하기 힘들다면 치약을 안 묻히더라도 칫솔질을 하거나 채소 섬유질이 많은 것을 씹는 것이 좋다"며 "두 개의 칫솔을 번갈아 사용하며 잘 건조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햇볕, 고혈압 완화 효과 (연구)

고혈압 증상을 완화하려면 짜게 먹는 식습관을 줄이고 담배와 술을 끊고,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제때에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햇볕을 쬐는 것이 여느 고혈압 치료제 이상의 혈압 강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팀이 24명의 자원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결과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하루 30분씩 햇볕을 쐬게 하고 그에 따른 혈압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이들의 혈압이 평균 5%가량 내려갔다. 그 효과는 30분 정도 지속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혈압 강하 효과는 혈액의 순환과 관련되는 화학물질인 질산염의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는 왜 영국의 경우 흐린 날씨가 잦은 북부 지방이 남쪽 지방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더 높은지를 설명해준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의 리처드 웰러 교수는 "피부암 등을 걱정해 햇볕을 쬐지 말라고 흔히 경고하지만 피부암보다 더 발생 빈도가 높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을 생각한다면 햇볕을 멀리하라는 것은 현명한 조언이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머톨로지(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실렸다.

전기 공사

BUMA ELECTRIQUE (뷰마전기)

- 가정용/상업용/ 산업용 전기공사
- 서비스 내용
  - > 배전반 신규, 교체 및 용량 증설 작업
  - > 레노베이션 전기 공사
  - > 조명 공사 및 누전 공사
  - > 전기 콘센트 / 전기 히터 / 전기 제품 설치
  - > 내외선 신설 및 증설
  - > 전기 고장 수리
- RBQ : 5643-2446-01(퀘벡건설협회 전기공사 Licence)

한인 기술자
뷰마전기
RBQ 5643-2446-01
514-928-0423

514-928-0423 (전기기술자 : 임범철)
e-mail : bumaelectrique@gmail.com

태권도

유.초.중.고., 남녀 성인부 - 개인.소그룹 지도
품세 겨루기 챔피언, 사범양성반
여성, 시니어 특별그룹반 (오전.오후반)

<권장원 관장>
캐나다 태권도 국가대표
쌩장 사관학교 태권도 사범
주니어 캐나다 챔피언 코치
대한민국 장관 표창
한.중.미.캐나다 교류 무역회사 운영

KWON TAEKWONDO
권 장 원 태 권 도
라이온키즈 아카데미
www.kwontaekwondo.com
KwontaekwondoLIONkidsAcademy
전화 514-553-8673

단 게 당길 땐 물을 마셔라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체내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운전 중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반응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나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어렵다. 즉 갈증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리는 유일한 증상이 아니다. 그나마 더울 땐 물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겨울에는 여의치 않아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쉽다.

미국 남성지 멘즈헬스가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탈수 증상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했다.

◆ 근육에 쥐가 날 때 =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경은 근육에 움직임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또 수분 부족으로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뿐더러 이튿날 근육통도 심해진다.

◆ 단 게 당길 때 = 간은 물을 많이 쓰는 장기 중 하나. 특히 간에서 글리코겐이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당분을 저장했다가 공복 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수분이 부족하면 간이 글리코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혈당 대처능력이 떨어지면서 도넛이나 단 음료가 갑자기 당길 수 있다.

◆ 어지럼증 =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 수분은 또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도 영향을 준다. 수분이 심하게 부족하면 현기증과 함께 구역질이 날 수 있다.

◆ 소변량이 줄 때 = 건강한 상태라면 3~4시간에 한 번 소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8시간 이상 변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수분 부족이다. 이 경우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험하다. 만성화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

◆ 변비 = 수분은 소화기의 활동을 돕는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배출이 힘들어진다.

비싼 차보다 저렴한 차가 좋은 이유

한 잔의 차는 우리에게 휴식과 평화를 제공한다.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하는 등 건강에도 유익하다. 어떤 차를 골라 어떻게 마셔야 제일 몸에 좋을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 비싼 차가 좋은 차?

차에 들어 있는 테아닌(theanine)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고혈압을 다스리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 그런데 테아닌 성분은 잎보다 줄기에 많다. 네팔의 마을에서 수확한 찻잎들 중 최상의 것을 하나하나 엄선해 포장한 값비싼 차보다 줄기까지 넣고 부수어 만든 저렴한 차가 몸에 더 좋은 이유다.

◆ 우유, 넣을까? 말까?

차에는 과일이나 야채보다 열 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다. 몇몇 연구는 우유가 이 항산화 성분의 생체 내 이용 효율을 낮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어떤 연구들은 우유를 넣든 말든 차이가 없다고도 보고했다. 판단은 시기상조. 우유에 관해서라면 취향대로 해도 좋겠다.

◆ 홍차가 나을까? 녹차가 나을까?

녹차, 백차, 홍차 등 다양한 차는 모두 차나무(camellia sinensis)로부터 나왔다. 수확 시기와 산화 정도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심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 체중 관리에 기여하는 카테킨(catechin) 성분은 모든 차에 존재한다. 그러나 산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덖고 비비고 가열하며 산화를 억제해 만드는 녹차와 백차에 더 풍부하다.

◆ 저을까? 말까?

찻주전자를 흔들지 마라. 찻잔을 요란스레 젓는 것도 금물이다. 그런 행동은 타닌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타닌은 쓴맛을 더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껏 섭취한 음식의 철 성분에 들러붙어 흡수를 방해한다.

◆ 얼마나 우려야 할까?

20분이 이상적이다. 20분을 우리면 테아닌, 카테킨 등 이로운 성분의 80%가 추출된다. 맛이 끔찍하다고? 미진하지만 2분에서 3분 정도만 우려도 괜찮다. 그래도 카테킨의 60%, 테아닌의 80%는 흡수될 것이다. 그 정도 짬도 내기 힘들다고? 약불에 30초 뭉근히 끓이고 머그에 따른 다음 전자레인지에 1분을 돌려라. 시간은 반으로 줄었지만 효과는 3분 우렸을 때와 같다.

한인기관 및 단체안내

몬트리얼 한인회	김영권 (514)481-6661
몬트리얼총영사관	허 진 (514)845-2555
퀘벡한인실업인협회	오승철 (514)939-3277
몬트리얼대한노년회	최계수 (514)484-3743
민주평통자문회의	이진용 (514)245-620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남기임 (514)953-3273
몬트리얼한인학교	정영섭 (514)695-6012
참전국가유공자회	최병철 (514)466-1178
재향군인회 몬트리얼분회	김인규 (514)296-6935
이북오도민연합회	김윤철 (514)791-4900
해병전우회	장승엽 (514)295-4898
교회협의회	김대영 (514)909-0691
외항선교회	김광오 (514)597-1777
몬트리얼시니어골프회	송재언 (514)383-2470
칠성회(골프회)	정세훈 (514)488-8042
몬트리얼 바둑동호인회	백성근 (514)482-3199
퀘벡한인테니스회	최성로 (450)672-9332
몬트리얼 야구동호회	최우근 (514)952-1833
퀘벡한인미술협회	정화자 (514)671-8133
몬트리얼 한인 선교 합창단	임명규 (514)825-5680
몬트리얼 한인 여성합창단	박천실 (514)562-1790
몬트리얼문학회	유희영 (514)481-9871
몬트리얼 한인무역인협회	송재언 (514)383-2470
한식종사자협의회	남기임 (514)953-3273
멘토클럽몬트리올	정재호 (514)816-4027
평창올림픽캐나다후원회	김광오 (514)817-7840
재카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박기철 (514)451-9388
콩코디아 대학 한인학생회	강성두 (514)653-5140
캐나다대사관	조대식 (613)244-5010

몬트리얼 종교단체

한인천주교회	이봉춘 (514)989-1033
한인연합교회	김진식 (514)762-0675
로고스 교회	이용화 (514)769-0121
한인장로교회	정문성 (514)678-4322
순복음교회	이승훈 (514)489-9191
한인감리교회	고영우 (514)731-2798
한인사랑교회	김성수 (514)237-1004
호산나교회	허정기 (514)313-6799
온누리침례교회	최병희 (514)815-0691
참빛장로교회	김 억 (514)989-2094
몬트리얼 한인교회	하수만 (514)232-2674
새생명장로교회	정성호 (514)549-8014
서광장로교회	황 디모데 (514)581-0691
람원교회	강숭희 (514)805-6390
몬트리올 제자교회	이지현 (514)884-1417
일본인 선교회	박광수 (514)777-3798
몬트리얼 관음정사	전민락 (514)730-4523
원불교 연구회	강희언 (514)731-9841
불교 법우회	이종원 (514)482-4956
열린법회(법륜스님)	정토회 (514)576-1625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MKMC 창립 기념 심령 대부흥회

일시 : 2월 9일(금) -2월 11일(주일)

◦ 금요 집회 : 저녁 7시 30분
◦ 토요 집회 :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 주일 집회 : 오후 2시

강사 : 정일남 목사
◦ 감신대. 감신대학원.
◦ Ohio UTS 선교학 박사.
◦ 미주감신대학교 선교학 교수.
◦ 어거스타 감리교회 담임.

687 Avenue Roslyn, Westmount, QC H3Y 2V1
514-808-8628 / www.mkmc.org

코리안 뉴스위크

몬트리얼 514-993-2121
오 타 와 613-254-9049

몬트리얼
서광장로교회

서광한글영재학교
> 매주일 4:00~6:30
입학자격: 만 3세 이상 17세 미만
입학문의 : (514) 674-1222, (514) 581-0691

본 교회는 한글영재학교와 주일영재학교, 두 축을 통해 장래 꿈나무들을 양육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일영재학교에서는 CERT와 Photo Bible Study의 Method를 사용하여 교육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으로 바른자세를 익힌 아이들은 반드시 후에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서광주일영재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주일 오후 4:10 ~ 5:30

주일예배: 1:30pm
수요예배: 7:30pm
새벽 기도회: 월~금 6:00am
토요일 6:30am
청년예배: 금 6:30pm

4020 rue Grand Boulevard, Montreal QC H4B 2X5
Tel: 514-581-0691
Email: seokwangmc@gmail.com

KSCHOI 보험 & 투자(주)
재정 어드바이저 최 광 성
- 오타와 교민 환영

. 생명,중병,상속,투자보험
. 유학생, 여행자, 치과 건강보험
. TFSA, RRSP, RESP, 고이자 원금보장 저축GIC
. 개런티 연금펀드, 이익배당 투자펀드
. 기타 차,집,가게보험 및 모기지 소개
. 신규 데자르댕 원금보장 주식투자 수익증권

Features table
Initial Date for Deposits: January 28, 2017 | Deadline for Deposits: March 24, 2017

GUARANTEE ADVANTAGE
MARKET-LINKED TERM INVESTMENTS

Return options	3 YEARS AND 2 DAYS TERM	5 YEARS AND 2 DAYS TERM			6 YEARS AND 2 DAYS TERM	
	Global Financials	Global Financials	Europe	Consumer Staples	Canadian Diversified	Canadian Diversified ($50,000+)
Return (%) (guaranteed minimum – potential maximum)	0 – 7	0 – 30	0 – 30	2 – 15	0 – unlimited	0 – unlimited Participation Rate of 110%

셀) 514-892-3437 회사) 514-748-0878 (4045)
팩스) 514-748-0804 이멜) ks_choi@me.com/ks.choi@sfl.qc.ca

Desjardins Insurance
LIFE • HEALTH • RETIREMENT
SFL
SFL INVESTMENTS

코리안 뉴스위크 Korean Newsweek

오타와 섹션
1090호 2018년 1월 27일

제보/기고/광고문의: jyshinottawa@gmail.com (613) 668-3475

오타와 지역 기관 및 한인 종교단체					
오타와 한인회	김상태	(613)400-8149	주 캐나다 대사관	신맹호	(613)244-5010
오타와 상록회	엄경자	(613)230-5500	한국전참전용사회	Bill Black	(613)726-5254
오타와 양자회	박민숙	(613)825-5203	카한협회	이영해	(613)736-8088
오타와 한글학교	정수영	(613)415-6029	주님의 교회	김영례	(613)408-1737
코윈 오타와지회	이선미	(613)864-2873	오타와 한인교회	강석제	(613)236-4442
평통 오타와지회	한문종	(613)795-8895	오타와 새소망교회	성인수	(613)790-0036
과기협 오타와지부	김근수	(613)558-5138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김경웅	(613)314-4113
과기협 청년모임	나동규	(613)265-8571	한국순교성인 천주교회	김현철	(613)237-5528
한인청년학술협회	이승기	(613)890-9307			
칼튼대 한인학생회	한용환	(514)585-0904			
오타와대 한인학생회	곽희원	(647)263-9137			
한웨이 소사이어티	이은혜	(416)201-2188			
한인장학재단	최정수	(613)729-0965			

신지연
오타와 지국장
jyshinottawa@gmail.com

KCAO THE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OF OTTAWA
오타와 한인회
ottawakorean.ca
ott.korean@gmail.com

KOWIN Ottawa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코윈오타와
코윈 오타와
kowinottawa.ca
문의: kowinOttawa@gmail.com

TAE E. LEE TAEKWONDO
Tae E. Lee 태권도
www.taelee.ca
(613) 722-6133
1300 Carling Ave

한인미용사 레이첼
504 Bank St
예약: 613-298-8666
화~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신맹호 대사의 오타와 한인 장학재단 후원 '자선 만찬'을 마치고...

▲Grant Pacey 내외와 신맹호 대사 ▶왼쪽부터) 신맹호 대사와 오타와 한인 장학재단 최정수 이사장, 이원숙 회장, 김우재 사무총장

신맹호 주캐나다 대사는 1월 12일 대사관저에서 오타와 한인 장학재단 후원을 위한 '자선 만찬'을 개최했다. '자선 만찬'을 마치고 카한협회 임원진으로 활동하는 Grant Pacey씨의 감사편지를 소개한다.

Friday night we were treated to a wonderful dinner in support of the Korean Student Scholarship Foundation hosted by H. E. Ambassador Maeng-ho Shin at his residence. In spite of the inclement weather in Ottawa that night it was well worth the trek across town to share the evening with some delightful people and to eat a traditional menu of items prepared for Korean Royalty. The flavours and presentation were superb! Of particular note was the Angel Pot dish consisting of beef strips and fresh vegetables in a tasty broth kept warm by a tea candle. It was a very memorable event and we thank the Ambassador and Chung Su Broussard for arranging it.

Unfortunately I expect due to the poor weather 5 of the guests were not able to attend thus our number was reduced to 14, nevertheless this did not detract from the evening. The night started with drinks in the fireplace room adjacent the dinning room, which gave us a chance to talk and meet the other attendees. We were then treated to a classical piano recital by Ms. Kristen Lee who has recently moved here with her husband Dr. Woo Jae Kim and their daughter from San Jose, California. She played beautifully. After a few introductory remarks their 4 year old daughter Ashley Kim dressed in a very beautiful hanbok presented a gift to the Ambassador to thank him for hosting the event.

There were a few more presentations by the OKCSF Executives and then we got down some serious eating. Because of the missing people the original seating plan sort of fell apart so we simply rearranged ourselves into a smaller group which added to the intimacy of the event. I forwarded you the menu so I think you will see we had some very favourable dishes.

It was a lovely evening, which Sheryl and I enjoyed very much. Being a smaller event gave us an opportunity to mix and talk with everyone. We would strongly recommend this if it is held again. Furthermore it supports a good cause.

Cheers,
Grant

DDM 카페, NAVER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다 풍성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Find us on facebook
오타와·킹스턴 지역 전문 유학원 (개오어)
유학정보센터 인트로캐나다
유학 컨설팅 조기유학 관리
어학연수
비자상담
이민정착 라이프 컨설팅
225 Paseo Private, Ottawa, Ontario K2G 4N5
OFFICE (613) 680-5577
CELL (613) 400-8149
ottawa@introcanada.com
IntroCanada 인트로캐나다 유학원
http://www.introcanada.com

Delaney's Law Firm
543 Somerset St. West, Ottawa
강기훈 변호사
부동산, 공증, 이민, 유산상속
613-233-7000 *1161
ryan@delaneys.ca

Dr. Frank Lee
Family & Cosmetic Dental Care
New patients welcome

모든 환자를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프랭크 리 치과
(613) 232-0392
www.westendsmiles.ca
drfranklee@bellnet.ca
1749 Carling Ave. Ottawa, ON K2A 1C8
Mon~Thur 8:00am to 5:00pm
Contact for Saturday appointment

KOWIN Ottawa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코윈오타와 KOWIN Ottawa

코윈오타와 2018년 정기총회

코윈오타와가 2018년 정기총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오타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신입회원도 환영합니다).

일시: 2018년 2월 3일 (토) 오후 4:30 ~ 8:30
장소: Ron Kolbus Lakeside Centres at Britannia Park
(102 Greenview Ave. Ottawa, ON K2B 8J8, Tel: 613-828-4313)
음식: potluck, 넉넉히 음식 한 접시를 부탁드립니다.

※ 코윈오타와에서는 밥, 불고기, 오징어무침, 탕수육, 김치를 준비합니다.
※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제공 됩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오타와지회 회장단 (kowinottawa@gmail.com)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 Ottawa Chapter

2018 오타와 한인회 설날잔치

Join us for KCAO 2018 Lunar New Year Celebration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오타와 교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늘 가정에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타와 한인회에서는 오는 2월 10일 (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과 덕담을 나누면서 우리 민족 최대의 절기인
설날의 정겨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흥겨운 잔치로서 전통문화와 공연, 경품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와 한인회 (KCAO) 올림

▶행사 개요

일시: 2018년 2월 10일 (토) 5:30 PM ~ 8:30 PM
(Saturday) February 10th, 2017

장소: Ron Kolbus Lakeside Centre
102 Greenview Ave. Ottawa, ON K2B &J8

포트락 파티
각 가정당 음식 한 접시씩 부탁드립니다.
(유학생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Potluck Dinner
Please bring a dish per family to share with others.

어린 자녀들을 위한 베이비 시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Babysitter available

한인회 연회비는 한인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2018년도 한인회비는 한 가정당 $50 (per family),
개인 $30 (per person) 입니다.
Annual membership due:
$50 for family & $30 for individual

▶이벤트 안내

새배 (New Year's Traditional greetings by children)
사물놀이 (Sa-mul-no-ri)
전통악기 연주 (Kayaguem performance)
경품 행사 (Activities for free gifts)

▶주 캐나다 대사관 순회 영사서비스

설날 당일 순회영사서비스를 오후 5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사과 문의 (613) 244-5010

▶오타와 한인회 문의처

이메일: ott.korean@gmail.com
전 화: (613) 400-8149
ottawakorean.ca
facebook.com/ottawa.kor

KCAO THE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OF OTTAW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민주평통 오타와 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더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번에 참가하게된 북한 선수단도 환영하며,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 가운데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주평통 오타와 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타와 지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ttawa Branch

[류은규의 한방칼럼]

겨울철 소화불량과 담적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화불량은 위장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증상으로 과식, 폭식 등 잘못된 식습관 뿐 아니라 스트레스, 낮은 기온, 담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위장 건강이 약한 민족으로 손꼽힌다. 때문에 식사를 해도 위장이 무력한 경우가 많아 소화불량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위장으로 향할 혈류가 줄어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곤 한다.

위장이 무력하면 위장 운동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기 쉽다. 유독 겨울철에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다면 바른 식습관과 더불어 체온 조절에도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딱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체온에 이상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담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담적이란 내시경검사를 받아도 발견이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 질환으로 위장 외벽에 담 독소가 쌓인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담 독소란 흡수 및 배설이 미처 되지 못한 음식물이 위와 장에서 부패해 가래처럼 탁하고 걸쭉해진 물질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담적 환자는 음식의 종류를 크게 가리지 않고 소화불량 증상이 반복된다. 음식의 양이 많든 적든 일단 음식이 속에 들어가면 불편감을 느낀다. 팽만감, 위통, 구역감, 속쓰림 등이 반복되고 소화제도 잘 듣지 않아 증상을 해소할 수가 없다. 또한 담적 환자는 보통 예민함을 동반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체내 혈액이 끈끈하여 순환이 안되므로 손발은 차고 열기는 명치 위쪽 상부로 몰린다. 따라서 담적 환자는 안면홍조, 상열감을 항시 동반하고 입과 눈이 마르는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담적 환자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상을 항시 동반하며 맵고 강한 음식을 먹을 때 위통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담적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체내 진액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자율신경의 실조 상태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며 교감신경의 항진상태 또는 부교감신경의 저하상태에서 체내 진액이 줄어들 수 있다. 체내 진액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끈해지고 위산 및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든다. 또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활성화 상태에서는 위장의 연동운동이 느려져 소화기능이 나빠진다. 보통은 음식을 섭취한 이후 위장 안에서 약 3시간 정도를 머문다. 이때 위산이 분비되어 음식 내 독소를 제거하고 위장의 연동운동으로 음식을 위산과 섞이며 내용물을 부순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산성 상태에서 십이지장으로 전달돼 이자액과 담즙이 섞여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 역류하여 역류성식도염을 일으킨다.

들어 준다. 담적 환자의 경우에는 위산이 부족하고 연동운동 기능도 떨어져 있으므로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와도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3시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위장 안에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여 환자는 답답하고 더부룩한 구역감을 느낀다. 장시간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발효를 하게 되며 이때 만들어진 노폐물과 독소가 다시 위장을 손상시키거나

담적으로 소화불량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학적 검사를 진행해보면 대부분 위장 부위가 돌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담 독소가 위장 외벽에 쌓여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무력하기 때문이다.

소화불량을 방치하면 만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면 담적을 의심해보고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새생명 한의원에서는 보험 청구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오타와 새생명 한의원

특진: 불임, 갱년기장애, 알레르기, 남성보양, 청소년 총명탕, 통증, 어린이 성장, 산후조리

원장 한의사 류은규
Ottawa 불임센터 협력한의사
McGill 의예과졸
Mercy College 한의대 수석졸
경희대 국제한의학과 수료
북미 한의사 자격증

* 몬트리얼 교민분은 자세한 전화 상담 후 한약을 배송해 드립니다.

예약, 상담 전화 613-863-6906
106-2211 Riverside Dr. (at Bank St)
www.freewebs.com/newlifeacu

we are a church, walking the Way togather through the wilderness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
금요 찬양과 기도: 금요일 저녁 8시

해외한인 장로회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10 Chesterton Dr. Ottawa
613-314-4113 / www.okpc.c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육 코너
캐나다 정육학교 출신의 경험 많은 정육사가 양질의 고기를 제공합니다.

베이커리
한국 제빵 과정을 수료한 능력있는 제빵사가 매일 맛있는 빵을 선보입니다.

정관장
세계적인 건강 제품 정관장이 개장합니다.

조리 식품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조리하는 맛있는 한국 음식 – 잊었던 엄마의 손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Hydro의 송압공사 지연으로 오픈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SEOUL Mart
Cell. 204 510 8812 Tel. 613 567 9988
22 Pretoria Ave, Ottawa, ON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지켜온 한식당, 고궁
편안하고 고향 같은 한국 전통 실내 분위기
정갈하고 깔끔한 맛과 정성이 가득한 메뉴
두 개의 단체 객실(10-15인수용)
단체 연회석(110인석)
넓은 무료 주차장

Fine Korean Cuisine
Fully Licensed
Tue-Sun:11:00am~10:00pm
Catering/Take Out
www.koreanpalace.ca

고궁 korean palace

610 Somerset St. W. Ottawa, ON K1R 5K4 Tel:(613) 321-3911 Fax:(613) 321-3922

kw KELLERWILLIAMS
콘도·하우스
투자용 주택·건물
상가·사무실

- Keller Williams Canada 1%
- 2014, 2015, 2016 Keller Williams Medalion Award
- 오타와 거주 15년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인 부동산 중개사

Moonok Reed
Sales Representative

Direct: 613.447.5007
Office: 613.829.1818
Email: mreed@kw.com

김 문 옥
Moonok Reed

전문적인 서비스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박 영석 Young Park
(613) 795-1567
ypark@royallepage.ca
4-3101 Strandherd Dr. Ottawa K2G 4R9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부동산 공인 중개인

"I will find you a home, not just a house."

ROYAL LEPAGE
Team Realty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age

kw INTEGRITY REALTY
KELLERWILLIAMS.
오타와지역
부동산
전문

Wen Lee Sales Rep. 이원경
wenlee@kw.com
613-219-8972
Keller Williams Integrity Realty, Brokerage
2148 Carling Ave. Ottawa, ON K2A 1H1
613-829-1818

HARMONY LAW GROUP
khshin@harmonylawgroup.com
TEL 613-709-4851
FAX 613-916-6007

신광훈 변호사

부동산법 상법 회사법
유산/상속법 지적재산권법
공증 및 기타 법률서류 작성

법무사 이경진

자동차 정비 $30 오일/필터 교환

예약 및 문의: 613-695-9688

믿고 맡길수 있는 정비소
"안전해얄 내차 제대로 고치세요!"

Onion Auto Service
30 Cleopatra Drive, Unit C, Nepean, On K2G 0B3
www.onionautoservice.com

한국식품

montrealkoreanfood.com
koreanfoods@gmail.com
6151 Sherbrooke.w [본점]
1829 Ste-Catherine w [다운타운점]
514-487-1672

[절인배추 주문 판매]
하루전 3시 이전 주문 요망
최소 주문 반박스

[김치제조 주문]
포기김치,막김치
최소주문 반박스

[오타와 배달]
매주 토요일

인터렉 또는 현금 구매시
2% 적립
(일부품목은 적립이 안될수 있습니다)

[본점영업시간]
월-금:9am-9pm
토:9am-8pm
일:11am-7pm

[다운타운점영업시간]
월-토:10am-10pm
일:11am-8pm

Interac VISA MasterCard

청정원 순창된장1.8kg($5.99)을
구매하면 450g 제품을 더 드립니다

Special events!

밀떡 떡볶이

순창 고추장 2kg
$13.99

허니버터 칩 2팩 $3.99

짜왕 매운맛

고객님~ 너무싸서 당황 하셨어요?

세상에 밑지는 장사가 어딨냐구요?~ 여기있네요!

롯데 꼬깔콘 허니 피넛버터맛 $1.99 tx
동원 참치죽 $1.99
퀴노아 햇반 (3개들이) $3.99
렌틸콩 햇반(3개들이) $2.99
향신간장(조림용) $2.99
아침햇살 1.5L $2.99
제주 감귤유과 $14.99 ~~$25.99~~
한국산 들깨 400g $7.99
삼립냉동우동면(5) 2개 $6.99
종가집 시골밥상 강된장양념 $0.99
일본 도라야끼 5pcs $3.99
쌀 누룽지 150g $1.99
현미누룽지 150g $1.99

2017, 고객감사 행운잔치 당첨자 발표

Congratulations!

1명,한국왕복항공권 또는 한국식품 $1000.00 상품권
신지선 [514 538 17**]
2명, 덤채 압력밥솥 ($700 상당)
허요한 [514 501 10**], 박상필 [450 626 13**]
2명, 민들레떡집 $50 상품권
Jung Michael[514 486 56**], 김정은[514 273 58**]
2명, 한국식품 $100 상품권
조재현[오타와], 최장규[514 995 47**]
3명, Sushi Q 제공 스시 30pcs 한판
정제숙[514 826 88**], 최나영[514 431 11**], 송경희[514 833 61**]
4명, 아사이베리 프리미엄골드($40 상당)
최보희[514 824 71**], 김이봉[오타와], 이희철[514 348 89**]
6명, 한국식품 $20 상품권
안나영[514 802 85**], 김요한[438 925 11**], 정진희[오타와]
장성임[514 992 48**], 이은선[514 239 43**], 남태경[514 654 93**]
10명, 홍삼절편 200g($40상당)
차영은[438 988 20**], 김상규[514 708 24**], 김남옥[514 293 53**]
김혜진[438 838 29**], 정미영[오타와], 이주희[514 655 63**]
이윤심[514 966 65**], 황세운[514 261 55**], 곽철준[514 690 **73]
YUTO[514 649 43**]

20명, 황금햅쌀 40Lbs
조은정[514 929 41**],김모아[514 979 52**], 조성수[514 622 83**]
제임스김[514 488 54**],이승훈[514 962 91**], 배미경[514 933 38**]
박수한[514 922 59**],김형석[514 582 12**], 박병수[819 432 65**]
유재환[514 767 99**],박인미[오타와], 최연수[514 550 81**]
이주영[514 835 32**], 조은희[514 431 82**],유재원[514 767 99**],
강희정[514 489 78**],이성철[438 496 87**], Silvia kim[514 927 80**]
이은경[514 431 14**],윤정희[514 213 24**]

50명, 천하일미 15Lbs
고은혜[514 777 47**],김지현[438 928 81**], 이규분[514 805 80**]
유영서[43888356**], 김영순[514 484 37**], 이동석[514 582 94**]
Lee regina[514 963 62**], 양하민[514 661 31**],오수현[514 963 64**]
김은찬[226 998 28**], 조경숙[오타와], 김도연[514 652 79**]
이오휘[514 293 70**], 유기수[514 513 94**], 박혜자[514 260 20**]
김현희[514 562 25**], Emma Oh ,신혜원[514 653 52**]
이성철[438 496 87**], 배정아[226 201 33**], 김고은[514 967 46**]
허은경[514 661 32**], 박종호[514 962 65**], 김미경[514 508 54**]
류정애[514 923 12**], 김혜진[438 838 29**], 이혜영[514 817 10**]
배재원[오타와], 조경희[438 823 91**], 박숙자[438 832 11**]
류경희[438 777 70**], 최은경[438 928 26**], 이명옥[514 576 81**]
고은정[514 588 50**], 무명(無名)[514 926 91**], 안주연[514 688 94**]
김태규[514 242 30**], David kim[438 924 26**], 최혜미[514 515 34**]
임의은[514 663 74**], 이경란[514 647 65**], David 권[514 296 14**]
유희정[514 632 82**], 남희경[514 566 70**], 박상남[514 464 00**]
남도선[514 703 65**], 현보미나[514 562 79**], 무명(無名)[514 694 55**]

응모해주신 모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는 1월 31일까지 해당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납품업주를 모십니다!++++++++

한국식품에 판매음식을 납품하실 개인이나 업체를 기다립니다.
win-win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각종 밑반찬,에그롤,스프링롤,각종 국거리,청포묵,도토리묵,본인만의 특별 음식등,,,
포장되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다 가능 합니다.
연락 주세요

한국산 신고배
청양고추,깻잎

유안농장
배추
$25.00

$29.99

청양 고추

구인
수말(토,일)

쌀 스페셜

CJ
같은 값이면 더 좋은쌀 드세요

황금쌀 $29.99
현미찹쌀 $15.99
반반미햅쌀 $16.99
찹쌀 $15.99

뚜껑형 221L

$18.49+Tx+운송

결혼식,장례식,생일상,동창회
각종 모임 음식
한국식품 쉐프에게 맡기세요

한국식품 김치병(4.4L, 2L)
깨끗한 빈병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개당 50센트

한국식품 내 로젠 택배 건강식품 코너
정관장
아사이베리, 각종 다이어트 제품구비
514-487-5104

한국식품 컴퓨터 수리서비스
514)573-2334
오늘 맡기고 내일 찾아 가세요"

이사
514
994-1743

김치 냉장고 딤채
180 리터
$1499 +Tx +운송비